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전화(053)602-5113 전송(053)602-5120
<http://council.gb.go.kr>

경북 의정활동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Vol. 67

| 열린의정구현 |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300만 경북도민과 함께하는
경상북도의회가
되겠습니다!





경북 의정활동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Vol. 67 Contents

| 열린의정구현 |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04 | 개회사 | 경상북도의회위원장 이상호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06 |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의회소식

08 | 의회소식

상임위원회 활동

12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문화환경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 건설소방위원회 | 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2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5분 자유발언

34 | 김명호 의원 | 김창숙 의원 | 김영기 의원
| 장경식 의원 | 김명호 의원 | 구자근 의원

도정질문 답변요지

44 | 김희수 의원 | 김영식 의원 | 이영식 의원
| 강영석 의원 | 흥진규 의원 | 김원석 의원

의원 동정

50 | 의장단 동정
52 | 의원 동정

어서오세요! 경북!

64 | "경북의 맛"과 함께하는 겨울여행 | 포항 과메기 & 울진·영덕 대게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68 | 언론보도 | 2010. 11 ~ 2010. 12

경북의정활동 2011. Winter | Vol. 67

| 발행일 2011년 2월 1일 | 발행처 경상북도의회 | http://council.gb.go.kr

| 주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 Tel. 053-602-5113 | Fax. 053-602-5120

제244회 제2차 정례회

개 회 사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의 길을 모색해
도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 의장 이 상 효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5개월여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도정의 알찬 설계를 위하여 오늘부터 40일간 일정으로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의회 발전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3백만 도민과 개원 당시의 초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와 위로,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 국가적으로는, G20 정상회의의 완벽한 개최 등을 통하여 국격(國格)의



품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지향상 등 경북 도정과 교육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신년도 사업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되고 있다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 하고도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그동안 수집, 분석한 자료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로 잡아 나가면서 한편으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끔, 건실하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가운데, 도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이번 회기는 연말까지 계속되는 강행군인 만큼, 동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제 244회 제2차 정례회

○ 경상북도의회 제244회 제2차 정례회는 2010년 11월 15일 14시 30분 본회의를 개의하여 12월 24일까지 40일간의 회기 동안 5차의 본회의와 연 67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정례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1월 15일(월) 14시 30분에 개의하여 제2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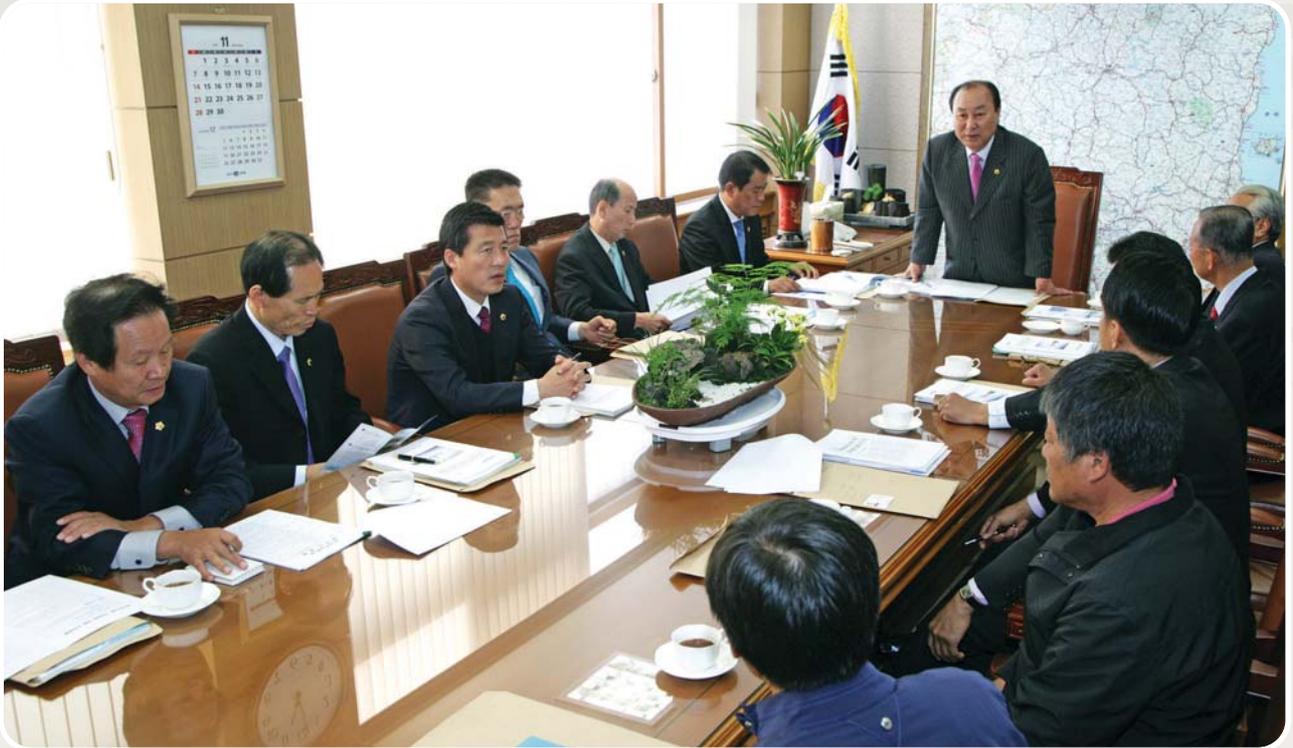
○ 휴회기간인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은 2010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다.



-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는 각각 11월 29일과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김희수 · 김영식 · 이영식 의원과 강영석 · 홍진규 · 김원석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 및 교육청의 2011년도 당초 예산안과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의회소식



●●● 이상호 의장은 11월 5일 의장실에서 대구취수원 구미미전 반대 범시민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 이상호 의장은 12월 2일 경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구제역 방역대책에 여념이 없는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했다.



●●● 이상호 의장은 11월 13일 포항지역 도의원들과 포항시 남구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현장을 방문하여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위로 격려했다.



한 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300만 도민과 함께 강력 규탄한다
2010. 11. 29(월) 경상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는 11월 29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의회 앞마당에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결의대회를 열었다.

의회소식



●●● 황상조 부의장은 11월 10일 경북도청 강당에서 열린 제51회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지역문화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 황상조 부의장은 12월 9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10 대구·경북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전시장을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송필각 부의장은 11월 9일 칠곡군 지천면 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했다.



●●● 송필각 부의장은 12월 22일 구미시 신평동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기공식에 참석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원하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상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



윤창욱 위원장(구미)



이정호 부위원장(포항)



강영석 위원(상주)



구자근 위원(구미)



김명호 위원(안동)



김하수 위원(청도)



김희원 위원(칠곡)



나기보 위원(김천)



박권현 위원(청도)



박명훈 위원(경주)



서정숙 위원(비례)



이경임 위원(비례)



이영식 위원(안동)



정영길 위원(성주)



황이주 위원(울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창욱)는

- 2010년 11월 23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의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2011년도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황이주(울진) 의원은 의회 홈페이지에 주간·월간업무계획을 게시하여 도민이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입법정책지원팀의 조속한 인원보강으로 업무가 폭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팀의 역할과 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길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정호(포항) 의원은 전산화시대에 부응하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한 업무용컴퓨터를 의원 개개인의 책상에 설치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힘써줄길 주문하였으며, 구자근(구미) 의원은 의회공무원의 일반직·계약직에 대한 호칭이 일원화되지 않아 호칭사용에 애로가 있어 일원화된 매뉴얼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다.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였으며, 촉구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제244회 제1차 회의

- 2010년 11월 2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북한 연평도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2011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북한 연평도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결연한 의지를 표출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으며, 남북한 화해와 공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사죄를 촉구하였다. 운영위원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인명살상 행위에 대한 사죄와 정부의 강력한 응징을 촉구하였으며 경상북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그 어떠한 평화 파괴 세력과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2011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예산 심사에서 나기보(김천) 의원은 의원 상해보상금이 전체의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이정(포항) 의원은 행정 운영 경비 중 인건비의 감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도의회 홍보영상물의 질을 높여줄 것을 주문하였고, 정영길(성주) 의원은 도의원의 건강검진을 단체로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주선해줄길 주문하였다.

끝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바, 전반적으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였으나, 촉구·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노력하는 등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제244회 제2차 회의

- 2010년 12월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제245회 임시회 일정을 결정하였다.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면서, 강영석(상주) 의원은 도의회 홈페이지 운용에 내실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정영길(성주) 의원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으로 예산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

한편, 제245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10일로 정하고 회기 중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결정하였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획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예산안 등 심사



장경식 위원장(포항)



황이주 부위원장(울진)



김세호 위원(비례)



김희수 위원(포항)



도기욱 위원(예천)



박성만 위원(영주)



박진현 위원(영덕)



윤창욱 위원(구미)



정영길 위원(성주)



한혜련 위원(영천)



황상조 위원(경산)

Planning & Economy Committee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제2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 2010년 11월 16일부터 25일(10일간)까지 소관부서인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를 비롯하여 지방공기업인 경상북도개발공사, 출자출연기관인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경북통상(주), (사)경상북도교통연수원,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등 10개 소관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출연출자기관에 대하여는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한 결과 시정·처리사항 9건, 건의·촉구사항 45건 등 총 54건을 지적했다.

특히, 출연출자기관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경영자립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일부기관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행정관리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12월 1일부터 3일(3일간)까지 소관부서인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등 5개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투자유치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는 각종 근로자 관련 행사에 대하여 성격이 비슷한 행사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에 대하여는 동북아자치연합의 필요한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포항 외국인 학교 설립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서울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에 대하여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미래전략사업 유치기반조성세부연구용역에 대해 국책사업화 하기 위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하는 한편, 대구경북그랜드포럼 개최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녹색섬 등 미래전략 기반조성 워크숍 개최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등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경북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명감을 갖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무료법률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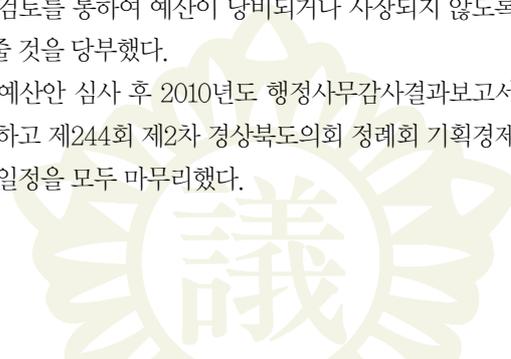
특히, 경상북도무료법률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등 심사

● 12월 21일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주문하는 동시에 예산수립 시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244회 제2차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 활동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사



권영만 위원장(봉화)



김하수 부위원장(청도)



구자근 위원(구미)



김영식 위원(경산)



김종천 위원(영주)



나현아 위원(의성)



송필각 위원(칠곡)



이경임 위원(비례)



채옥주 위원(포항)



Administration Health &
Welfare Committee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제2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9개 기관에 대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처리요구 10건, 건의·촉구 46건, 미담수범 사례 1건 등 총57건에 대해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제1차 상임위 회의('10. 11. 29)에서는

-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안과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3건은 원안 가결하였다.

제2차 상임위 회의('10. 12. 1)에서는

- 감사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3차 상임위 회의('10. 12. 2)에서는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다.

제4차 상임위 회의('10. 12. 3)에서는

-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친 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였다. 계수조정 결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6건에 17억 3,0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13건에 37억 2,700만원을 삭감, 수정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다.

제5차 상임위 회의('10. 12. 21)에서는

-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행정지원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서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 또한 제5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원안가결 하였다.



상임위원회 활동

문화환경위원회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심사



장세현 위원장(포항)



이영식 부위원장(안동)



김기홍 위원(영덕)



김말분 위원(비례)



김창숙 위원(비례)



박병훈 위원(경주)



배수향 위원(김천)



이시하 위원(문경)



이정호 위원(포항)



전인철 위원(구미)



전찬걸 위원(울진)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현)는

제244회 정례회 기간 중

●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와 2011년도 당초예산 및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 의결 하였다.

먼저 11월 15일에는

●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하여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결의안에는 경상북도의회가 대구취수원의 구미이전을 반대하며,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구미시민이 원하지 않는 취수원 이전 계획은 즉각 백지화하고 대구와 경북이 상생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국학진흥원, 경북환경연수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등 위원회 소관 본청 2개 부서와 4개 소속기관, 4개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초점을 두고 집행예산, 주요사업 추진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

도 본청 및 직속기관 감사에서는 각종 사업의 지역 편중, 부서간의 업무 중복, 도민 의견수렴 미흡 등을 지적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 감사에서는 불필요한 조직 및 방만한 예산운용, 자생능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과감한 정비와 효율적 예산운용을 주문하고, 특히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한 행정지도를 촉구하였다.

2011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는

-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사업단위별로 조목조목 질의하면서 세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문화관광체육국의 경우는 도민들이 골고루 문화·관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하고, 우리 도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문화와 관광, 해양이 연계된 다양한 관광자원 콘텐츠 개발을 당부하였다.

환경해양산림국의 경우는 산림부서의 업무중복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업무분장을 주문하였다. 또한 생태공원조성, 산림욕장 조성 등 각종 사업 선정시 철저한 수요예측에 따른 사업성 분석을 통하여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각급 기관단체나 민원인이 의뢰하는 검사에만 치중하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연구·조사 업무 수행을 주문하고, 이를 위한 장비현대화 사업예산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당부하였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는

- 지난 3월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분 조정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정리추경임을 강조하며,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의 반납사례를 없도록 예산편성 전부터 면밀한 분석과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세계유산과 잠정목록에 등재될 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코자 제정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세계유산관련 전문가”로 되어 있는 것을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은 항만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항만법 제27조제2항이 삭제된바 조례 폐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다.



상임위원회 활동

농수산물위원회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심사



이상용 위원장(영양)



박권현 부위원장(청도)



강영석 위원(성주)



김대호 위원(구미)



나기보 위원(김천)



박기진 위원(성주)



변우정 위원(구미)



이왕식 위원(의성)



정상진 위원(예천)



최학철 위원(경주)



한창화 위원(포항)

농수산물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 제2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3일 3건의 조례안 처리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대책에 전념키 위해 3차례나 연기한 농수산물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이날 처리한 조례안은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하던 경북농어업 FTA대책특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농어업자유 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농수산물위원회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안할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농어업인 대상 시장 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안」으로서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일부사업장은 사업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점검을 강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하는 한편, 대학 등에 용역을 주는 사업은 신중히 검토할 것과 농업기술원 연구직 공무원 확대활용 방안을 주문하였고, 농수산분야 2011년도 예산이 도 전체 예산 증가율 6.0%보다 8.1% 증가되었다지만 영천경마장 등 대규모 사업예산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증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수산분야 예산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과 국비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농촌인력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시책개발과 추진을 당부하였다.

또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그동안의 대처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구제역 조기 종식과 발생농가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지역 인근 농가도 매매의 어려움과 사료비 부담이 과중되는 현실을 반영한 지원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쌀 소비촉진 홍보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홍보성 위주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가공분야와 쌀 미질향상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2012년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 12월 21일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이날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경상북도 스타·연구지도 공무원 시상과 관련하여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정리추경에 이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사업 취지에 맞는 것인지 질의하고,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인 만큼 수상 공무원도 사기와 공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사업 계획을 세워 당초 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고,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지원기준과 부담비율 등을 볼 때 지구수에 따라 보조금(광특)을 달리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경우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년간 사업량을 똑 같이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질타하고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하였다.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은 농산물 시험연구와 보급이라는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인 만큼 서로간의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양 기관간 정기 및 수시로 만나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구제역 대처상황과 관련하여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구제역 발생지역 사람 및 차량이동 차단에 주력하여 구제역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구제역 관련 중앙 보조금이 긴급 배정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구제역 관련 예산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걱정하게 집행되어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상임위원회 활동

건설소방위원회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개정안 등 심사



고우현 위원장(문경)



김명호 부위원장(안동)



곽광섭 위원(고령)



김수용 위원(영천)



김희원 위원(칠곡)



윤성규 위원(경산)



이용진 위원(울릉)



장두욱 위원(포항)



장영석 위원(구미)



한재석 위원(상주)



홍진규 위원(군위)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도청이전추진단, 건설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방본부, 종합건설사업소, 16개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2일부터는 2020 경상북도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11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도정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집 도정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집중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 12건과 건의·촉구 13건, 수범사례 1건 등 총26건을 지적하는 등 심도 있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 민선4기 최대 역점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 및 현장소방 대응 능력 향상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최근 경제지표는 호전되고 있으나,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편성한 만큼,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 하였다.

▶ 도청이전추진단 소관으로

전년도 23억 4천2백만원 보다 233억 6천9백만원이 (997.83%)이 증액된 257억 1천1백만원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사와 홍보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는지와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으로

전년도 6,448억 5천5백만원 보다 320억 5천9백만원 (4.97%)이 증액된 6,769억 1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도 전체 예산 5조 4,509억 3천4백만원의 12.42%를 차지하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6,194억 4천4백만원 보다 312억 2천5백만원(5.04%)이 증액된 6,506억 6천5백만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정비,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

▶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74억 6천7백만원보다 48억 6천2백만원 (65.11%) 감액된, 26억 5백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주요심사 내용은 낙동강살리기 홍보사업비로 8억 3천9백만원을 편성한 것과 낙동강살리기사업 일반공공 준공식 경비로 1억원을 계상한 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에 준공식 경비로 1억원을 계상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재검토를 당부 하였으며, 낙동강 준공시기에 성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낙동강 수상레저페스티벌 행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는 것은 준공식 경비와 중복되지 아니한지 검토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 소방본부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1,673억 7천1백만원보다 106억 2천9백만원(4.03%) 증액된, 1,780억원으로써, 이는, 도 전체 예산액 5조 4,509억 3천4백만원의 3.27%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청소 용역비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



상임위원회 활동
교육위원회

2011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심사



김영기 위원장(청송)



서정숙 부위원장(비례)



김원석 위원(교육1)



박태환 위원(교육5)



심정규 위원(비례)



이달 위원(경주4)



최우섭 위원(교육2)



추재천 위원(교육3)



홍광중 위원(교육4)

Education
Committee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제24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 회의(12. 1)에서

-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근거 법령인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가 2010년 3월 17일로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어서 원안가결 하였다.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2007년 4월 5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므로 원안가결 하였다.

-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과,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은 교직원전세자금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25억 1천8백만원이며, 교직원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11년도 근무지 무주택 교직원 125명을 지원하여 교직원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주택 교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금의 지속적 확대는 물론 자금 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제2, 3차 상임위 회의(12. 2 ~ 12. 3)에서

-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규모 2조 8,470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조 6,737억 5,700만원보다 1,732억 6,900만원(6.5%)이 증가하였다.

상임위 위원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수요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의 배분에 신중과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 절감 등을 통한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다양한 교육 수요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재적소 및 적기에 집행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심사 결과 세출예산 중 도지정 연구학교보조금 등 98건에 40,686,561천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다.

제4차 상임위 회의(12. 4)에서는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3월 1일자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병설 유치원 8개원과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1개교를 폐지하고, 원아수 증가 지역에 병설유치원 3개원을 신설하는 한편, 택지 개발 및 주택 재건축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각 1개교 신설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 경상북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천 방법 및 학교군·중학구 일부변경안은 초·중학교 신설 및 통·폐합에 따른 교명을 추가, 삭제 및 변경하고,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학구조정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다.

-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취득할 재산으로 안동학생야영장건물 취득건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학생야영장 시설 개선 사업 기본 계획(2008. 8. 28)”에 따라 야영·수련활동의 내실화 및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북부권 중심 야영장인 안동 학생야영장의 시설을 개선하고자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이 본관동 및 강당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다.

제5차 상임위 회의(12. 21)에서는

-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규모 3조 1,541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1,058억 7,500만보다 482억 8,200만원 (1.6%)이 증가하였다.

심사결과 당면한 각종 교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사업 집행 잔액 및 인건비 등 사업비 조정을 통한 재원으로 지속적인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현안사업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기타 민간지원금 등 목적이 지정된 사업은 사업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다.

- 경상북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처리하였다. 학생의 건강 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려는 정부 정책 추진에 발맞추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일괄 단축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는 학원 등의 심야교습으로 인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수면과 휴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야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을 원활하게 하고,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인바,

심야교습시간 제한은 이해당사자간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안으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학생건강권 보호와 학교교육정상화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학생들의 학습선택권 침해 우려, 불법적인 개인 고액과외나 학원 심야 교습 우려, 야간자율학습 시간 조정 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본 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위원회(2010. 8. 31 폐원)에서 의결이 보류되어 지난해 9월 1일 우리 상임위원회로 승계된 안건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해 12월 1일 학부모, 교원, 학원 연합회 및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간담회를 개최, 찬성측과 반대측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 바 있다.

특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 정리추경예산 심의 및
2011년 본예산 심사



박병훈 위원장(경주)



정영길 부위원장(성주)



김기홍 위원(영덕)



김영식 위원(경산)



김창숙 위원(비례)



김희수 위원(포항)



나현아 위원(의성)



박태환 위원(교육5)



배수향 위원(김천)



이왕식 위원(의성)



장영석 위원(구미)



정상진 위원(예천)



추재천 위원(교육3)



한재석 위원(상주)



한창화 위원(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훈)는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본예산 및 2010년도 경상북도 제2회, 경상북도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실시하였다.

제244회 정례회 기간동안

-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본예산 및 정리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여
- 2010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 경상북도는 일반회계에서 대구경북연구원운영지원비 30억원, 교통연수원시설리모델링 5억 8천만원, 포함 및 안동의료원 채무상환 6억 9천만원 등 총 60건 122억 1천만원을 감액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추진 8억원, 벼육묘장설치 6억 9천만원 등 19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Magic-LED시범사업 15억원을 삭감하여 가결하였고,
 - 경상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지원 41억원, 그린스쿨 사업 100억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40억원 등 총 62건 221억 4천만원을 삭감하고 증액없이 가결하였다.
- 그리고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의 2010년도 정리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서는
 -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에 대하여 증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에서는

- 이번 심사의 경우 안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실시되는 초기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주일간 실시를 연기하였으나 꼼꼼하고 신중한 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 일정을 축소하지 않고 주말인

토요일에도 심사를 진행하는 등 열의를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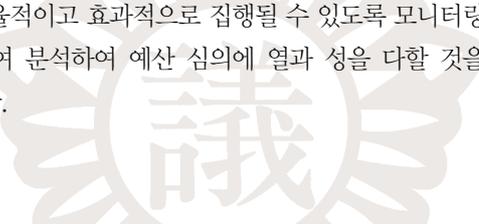
경상북도는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매칭 부담 등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지원 등으로 재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도청이전 본격화, 경마장 건립, 3대문화권 기반조성 등 새로운 세출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예산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구성된 예산구조이나 교육복지사업이 늘어나고 경직성경비의 비율이 높아 교육환경 개선 사업추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심사에 임했다.

충격에 빠진 세계경제의 위기에 따라 국내 경기가 불안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인한 농촌의 피해를 줄이고, 서민생활 안정과, 실업난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 심사시 특정지역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가지고 예산심사에 임하고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도 철저히 심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종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투자 사업효과가 골고루 혜택을 미치도록 하고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사를 마친 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향후에도 예산편성시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철저한 예산심사를 할 것을 약속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두며 예산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분석하여 예산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별위원회 활동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독도수호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방안 협의 및
안용복 도일행적지 탐방



전찬걸 위원장(울진)



이용진 부위원장(울릉)



김말분 위원(비례)



김명호 위원(안동)



이경임 위원(비례)



이 달 위원(경주)



이왕식 위원(의성)



최우섭 위원(교육2)



한창화 위원(포항)



Special Committee of Dok-do Protection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제244회 정례회 기간 중인

● 11월 25일~26일 양일간에 걸쳐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독도 영토수호를 위한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11월 25일에는 국회 독도수호대책특별위원회 방문하여 회의를 참관하고,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도방파제, 독도해양과학기지건설, 독도현장관리사무소, 울릉 사동항 2단계 등 독도관련 현안사업 중 지연 또는 유보되고 있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하였다.

11월 26일에는 정부차원에서 독도문제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와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를 방문하여, 독도문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브리핑을 받고 영토·영해관련 조사 연구사업과 홍보,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체계구축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세종대학교 호시가 유지 교수를 면담하고 독도문제를 비롯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 한일양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고 앞으로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와 경상북도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간에 서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정례회 폐회 기간 중인

● 12월 28일~12월 31일에는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돗토리를 방문하여 300년전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역사적 인물인 안용복의 도일행적지를 탐방·조사하였다.

이번 탐방은 최근 역사왜곡과 독도침탈 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 시마네현의 도발현장과 독도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오키섬의 독도관련 전시물 현황, 돗토리 현립박물관 등의 소장자료를 조사하여,

앞으로 일본의 독도 추가 도발에 대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실시하였다.



특별위원회 활동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낙동강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촉구 성명서 발표



채옥주 위원장(포항)



구자근 부위원장(구미)



강영석 위원(상주)



곽광섭 위원(고령)



박권현 위원(청도)



심정규 위원(비례)



이정호 위원(포항)



정상진 위원(예천)



정영길 위원(성주)



Special Committee on
Nakdong River Revival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제243회 정례회 기간 중인

● 12월 7일 채옥주 위원장이 대표하고 구자근 부위원장 및 특위위원들이 함께 낙동강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발표 취지를 보면 현 정부의 최대 현안사업인 4대강사업의 일환인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가뭄과 물 부족 등 고질적인 물 문제 해결은 물론 생태복원으로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 향상에도 직결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의 경우 낙동강과 함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왔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당리당약에 얽매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예산 심의를 늦추는 등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성명서 내용으로는 정치권에서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지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과, 4대강 사업 예산은 홍수와 가뭄에 고통 받는 지역 서민 살리기 예산임을 명심하고 사업예산 전액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별위원회 활동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도청 이전 신축비 전액국비지원 건의안 채택



박진현 위원장(영덕)



도기욱 부위원장(예천)



김명호 위원(안동)



김세호 위원(비례)



김종천 위원(영주)



변우정 위원(구미)



이시하 위원(문경)



이영식 위원(안동)



홍광중 위원(교육4)



Special Committee of Provincial
Building Removal Support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제244회 본회의 첫 날인

- 11월 15일 제3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도청 이전 신축비 전액국비지원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곧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다.
- 경상북도 청사는 1965년 대구시 중구 포정동에서 현재의 북구 산격동으로 이전하였고, 대구시가 1981년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인해 도민들이 행정·재정적으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받아 왔으며, 오랜 기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구시와 분리된 지 27년만인 2008. 6. 9 도청이전예정지를 안동·예천 일원으로 확정하고 현재 도청의 최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 가장 최근인 2005년에 이전한 전라남도의 경우 법적 지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사신축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인 1,687억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았으나, 우리 도의 경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청사 공사금액인 845억원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총 신축비 3,184억원 중 약 73%인 2,339억원을 지방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어 청사이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청사 신축이 지연될 경우 도청이전을 염원하던 도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0,966천㎡(약 330만평) 규모의 도청이전 신도시의 조성과 분양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에 경상북도의회에서는 300만 경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청사건립에 따른 지원예산을 과거 전남도청 이전 시 국비 지원 선례와 동등하게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으로
-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여 300만 도민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였다.





2010년 11월 15일(월)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임진년과 웅도 경북의 정체성

김명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안동)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2년은 임진년(壬辰年)입니다. 2012년 임진년 6월 2일(음력 4월13일)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4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임진란 이후 60년마다 돌아오는 7갑주년(甲週年)이 되는 날입니다.

임진란 당시 영의정(領議政)으로서 도체찰사(都體察使)를 겸하며 사실상 전쟁을 지휘했던 서애 류성룡(西厓 柳成龍, 1542~1607) 선생은 종전 후 하회로 귀향하여 <징비록>을 집필했습니다.

“다시는 임진란과 같은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참화와 염원에서, 그 수난의 내용을 낱알이 기록하고,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豫其懲而弼役患)는 시경(詩經)의 구절을 따 책이름을 <징비록>(懲毖錄)이라 붙였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병자호란을 겪어야 했고, 식민 통치를 경험했습니다. 국권회복 65주년인 오늘날은 일본 정부의 허무맹랑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또 다시 나라 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1952년 임진년 5월 24일,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부산 피난 정부시절,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경상북도지사 신현돈(申鉉墩)을 제관으로 하회에 보내, 문충공(文忠公) 류성룡 선생 가묘(家廟)에 치제(致祭)케 했습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임진왜란 6갑주년 제문입니다>.

또한 당시 문교부장관 백낙준(白樂濬)에게는 하회마을의 풍납초등학교에서 호국정신을 기리는 강연회를 주관하게 했습니다.

전란 중이었던 이승만 정부로서는 매우 지극한 정성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최초의 독자적인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임란이 끝나고 60년마다 돌아오는 때 임진년에 국왕은 임란 호성공신(扈聖功臣)과 선무공신(宣武功臣) 중에서 그 공이 지대했던 아홉 명의 공신을 위하여 단제사(壇祭祀; 합동 위령제)와 사제사(賜祭祀; 공신의 집에서 지내는 사은의 의미가 담긴 제사)를 모셨습니다.

1832년 임진년 2월 6일, 순조 대왕은 다음과 같이 하교했습니다.

“충렬공(忠烈公) 송상현(宋象賢)과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 충렬공(忠烈公) 고경명(高敬命),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이 순절한 장소에는 국난에 목숨을 함께 바친 장수들과 더불어 단(壇)을 쌓아 치제토록 하되, 제관은 본도(本道)의 수령 가운데 직질이 높은 자를 가려서 차출하라.”

“문충공(文忠公) 이항복(李恒福), 문정공(文靖公) 윤두수(尹斗壽), 충익공(忠翼公) 정곤수(鄭崑壽), 문충공 류성룡, 충장공(忠壯公) 권율(權慄)의 가묘(家廟)에는 승지(承旨)를 보내 치제케 하되, 사판(祠版)이 시골에 있는 자는 도내의 수령으로서 일찍이 승지를 지낸 사람을 가려 제관에 차출토록 하라.”

이때는 이미 임진왜란이 일어난지 240년이 지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순조 대왕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공신들과 장수들을 이토록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실제로 순조 대왕은 임진왜란 4갑주년인 1832년 임진년 4월에 친히 제문을 짓고 경주부윤 정예용으로 하여금 문충공 류성룡 선생 가묘에 치제케 했습니다.

<이것이 순조 대왕의 제문입니다>.

다시 60년 뒤인 1892년 임진년 5월 25일, 임진왜란 5갑주년에는 고종 대왕이 안동부사 김가진으로 하여금 문충공 류성룡 선생 가묘에 치제케 했습니다.

<이것이 고종 대왕의 제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경북도민은 삼국통일의 주체였던 신라의 후손들입니다. 퇴계학맥으로 상징되는 한국정신문화의 본산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의기의 땅입니다.



이제, 2014년 신도청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옹도 경북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확고히 재천명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2012년 임진년 6월 2일, 60년 만에 돌아오는 임진왜란 7갑주년을 맞이하여, 문충공 서애 류성룡 선생의 공적을 기리는 추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주십시오.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에 걸맞은 스케일로 재현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스스로 헌관(獻官)이 되어, 한국 정신문화의 본산인 옹도경북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역사인물에 대한 추념의 차원을 넘어, 한민족공동체의 정체성과 영남인으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역사교육의 장으로서도 깊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당국에게는 독도를 수호하는 경상북도민의 단호한 의지를 재천명하는 부수효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깊이 통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15일(월)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경산시 평산동 역사평화 공원 조성사업 관련

김창숙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비례대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비례대표 김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44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산시 평산동에 있는 코발트 광산을 역사평화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시 평산동에는 대원골이라는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한 많은 골짜기는 일제 당시 강제노역에 시달린 백성들의 원혼과 한국전쟁 직후 무고한 민간인 수천 명이 국가권력에 의해 처참하게 살육 당한 원혼들의 한이 서려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원골 입구에 폐허로 방치된 폐광을 들미 광산, 보국코발트 광산이라고 부릅니다.

보국코발트광산은 일제가 태평양전쟁에 쓰이는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만든 한반도 최대의 코발트광산으로 1930년대 말에서 1940년 초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전쟁에 패한 일제가 폐갱처리 없이 떠나고, 전쟁이 터지자 당시 군경은 대구형무소와 경산 인근지역 보도연맹원들을 인민군에 동조할 위협이 있다며 폐갱도와 대원골에서 적법 절차 없이 무차별 처형하였습니다. 이곳 주민과 유족들은 많게는 1만명에서 적게는 3,500여 명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경북도의회에서도 이미 지난 2000년 양민학살진상 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발트광산은 지난 2005년 평산동 일대에 대규모 인터볼고 경산골프장이 들어서면서 대원골이 완전히 훼손되고, 폐갱도 일부도 유실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유족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수직갱도 2곳과 수평갱도 2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역사적인 현장을 생명존중을 상기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 코발트광산은 일제의 지하자원 수탈현장이자 민간인 희생사건 현장이라는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현대사의 주요유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제의 지하

자원수탈현장인 영양의 용화광산(제255호)은 이미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11월 17일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코발트광산사건은 '과거 좌익경력으로 인해 남하하는 인민군에 협조할 위협이 있는 잠재적 적으로 간주되어 각 지역 경찰, 경북지구 CIC 및 지역 파견대, 국군 제 22헌병대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비 검속자들과 대구형무소에 미결 또는 기결수로 수감되어 있던 사람을 불법 사살한 민간인 희생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비록 전시였다 하더라도 민간인들을 예비 검속하여 적법 절차없이 사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별도의 추가적인 조사, 위령제 봉행, 위령탑 건립, 현장 보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상북도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현대사 현장인 평산동 코발트광산을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역사평화공원으로 조성해 후손들에게 평화인권 교육현장으로 물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가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산동 역사평화 공원 조성 사업」추진되어 훼손되어 가는 현대사의 현장을 보존시켜 줄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21일(화)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신속한 119 구조대 응급조치 촉구

김영기 의원(교육위원회, 청송)



청송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내 응급의료체계의 현실과 신속한 119구조대의 응급조치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청송에서 발생한 농기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의 부재 및 응급구조대의 도착지연으로 인한 젊은 농민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은 도내 응급의료체계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는 올해 46세로 경북대학교를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묵묵히 우리 농촌을 아끼며 지켜나가던 젊은 농민의 비보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도내 응급의료기관은 총38개 기관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8개소입니다만,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영양, 영덕,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등 7개 지역에 달하여 도내 의료취약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의료취약지역이나 고립된 상황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에서는 응급환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료하기 위해 응급 이송체계를 강화해야만 하는데 의료사각지대가 많은 경북의 경우 이러한 응급이송체계마저도 매우 미흡하여 도내 응급 환자들은 더욱더 큰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각종 농기계사고 및 교통사고, 심장질환이나 호흡 곤란 등 긴급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여부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응급환자 발생 이후 신속한 119구급대 출동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방방재청의 2009년도 119구조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19구급차량이 환자의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에서 현장 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전국평균 8분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경북도는 11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어 경북도의 응급 의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119구급차에서 병원으로 이송도중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간이 상당한 만큼,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구급 대원의 전문적이고 적절한 처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응급구조사 유자 격자 비율을 살펴보면, 대구·울산 91.7%, 광주 85.6% 등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이 잘 갖추어진 광역시에서 전국 평균치 69.9%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도의 경우에는 경기 82.2%, 강원 80.2%, 제주 78.0%이나, 우리 경북도의 경우 69%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사안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현재, 각 시도에서는 이러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과 119 상황실 및 해양경찰청 등과의 MOU체결 및 응급환자 항공 수송확대 및 소방항공대의 적극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북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처도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북도내 소방항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2대 이며 운용요원은 15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현황은 전남 2대(운용요원 16명), 경남 1대(운용요원 14명), 인천 1대(운용요원 13명), 강원 2대(운용요원 25명)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속한 119 구조대 응급조치 촉구

그러나, 2009년도 소방항공대 구조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응급환자구조를 위한 횡수는 전남의 경우 175회, 경남 194회, 인천 85회, 강원 257회 등인데 반해, 경북은 64회로 나타나 타시도와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응급이송수단의 확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비록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도민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막중한 사안임으로 도차원에서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응급이송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농어촌산간지역 및 의료사각지대에 119구급대를 확대 배치하고, 더 나아가 응급환자 헬기 수송 확대 등을 통한 특별대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화된 응급의료체계를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21일(화)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지역 국비예산 정치적 왜곡·호도 시정 촉구

장경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포항)



포항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8일 국회의 새해 예산안처리와 관련하여 일부 정당과 언론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특정인·특정지역에 마치 막대한 예산특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치기, 형님예산 등 선동성 짙은 용어를 확산시키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챙기는데 골몰하는 모습들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부터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온 계속 사업들일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차원에서 대구·경북은 물론 울산과 강원권을 모두 연계하는 국책SOC 사업 및 R&D 사업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울산~경주~포항간 고속도로건설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이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와 고속도로가 없는 교통오지로 남아 있고, 국도7호선 건설에만 20년이 걸린 동해안 지역의 지역간 불균형을 최소한이라도 시정하고자 하는 환동해권 지역민들의 마지막 희망이 걸려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남북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울산~삼척간 철도, 울산~포항간 철도사업은 역시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과 2003년에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경북뿐만 아니라 울산과 강원 등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는 2007년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프로젝트로 막스플랑크 연구소측에서 포스텍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지난 1999년부터 건설 필요성이 제기 되어온 것으로 3세대 방사광가속기 지역에 4세대 가속기 건설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 외에도 녹색섬 울릉도는 국가

녹색성장 시범모델일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말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 예산입니까?

이와 같이 이번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 또는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정부의 장기계획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미래 신성장 동력확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이하의 논리로 특정지역을 편취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정치적 왜곡을 일삼는다면 과거 서해안을 중심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개발 사업을 진행한 것도 똑같이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 우리 대구·경북은 지난 10년동안 주요 국책사업의 지역편중으로 많은 차별을 그대로 감내하여 왔습니다. 당장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의 대형국책사업비 기준 상위 5개 프로젝트를 분석해보면 광주·전남은 45조 7천여 억원인데 비하여 대구·경북은 8조 3천467억원에 불과하며 5대 국책사업비를 모두 합하여도 여수세계박람회 사업비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선 지금도 5+2 광역경제권 사업의 호남권 예산이 대구·경북의 8배에 달하는 등 지역 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불균형적인 예산배분이 계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이고 포항이 언급되지만 하면 특혜 예산입니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새해예산안과 관련하여 특정인·특정지역에 치우친 예산배정이라면서 사실과 전혀 다른 정치적 공세와 악의적 정략 그리고 북부권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새로운 동해안시대를 열고자 하는 300만 경북도민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는 일체의 저급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무책임한 왜곡발언을 자행한데 대해 즉각 경북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보다 큰 틀에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대한민국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년 12월 21일(화)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제역 사태와 경북 축산 재건

김명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안동)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뜻하지 않은 구제역(口蹄疫, FMD) 사태로 도민들과 축산농가,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안동시 와룡면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발표가 있는 직후, 신속하게 매몰작업과 이동통제 방역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농가 수는 급속히 늘어났고, 아직까지도 완전 종식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로 안동축산은 그 존립기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제역 이전 안동의 우제류 가축 사육수는 2,493농가에 총 166,210마리였는데, 12월 20일 현재 124,469마리가 매몰 처리되어, 남은 가축은 1/4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결과로 일각에서는 관계당국의 초기대응을 문제 삼는 책임추궁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은 서로를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워줄 때입니다. 사상초유의 재난에 대한 경험 부족, 시스템부족, 전문가부재, 인력부족, 축산농가의 비협조 등 최악의 조건 속에서, 그나마 이 정도로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안동시와 경북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권역세 안동시장과 김관용 지사의 능동적인 재난대응능력과 리더십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금번 구제역 사태로 안동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매몰된 12만 5천마리 이상의 가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역대 최고액인 1,200억원 이상의 국고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매몰 사태로 지하수 오염위험이 높아진 데 대한 상수도 확충 비용으로 약 400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수개월간의 방역비용만 해도 약 200억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가히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가 국비확보가 시급하고, 지방비 분담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지사님의 해안을 기대합니다.

주지의 사실이나, 구제역은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감염되지 않는 전염병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안동에서는 구제역 간접 피해가 너무도 심각합니다. 문자 그대로 지역경제 기반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게는 그나마 보상이 있지만,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출이 90%나 급감한 식당들과 폐쇄된 재래시장의 상인들, 그리고 만성불황에 시달리는 택시업계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마치 구제역 사태의 속죄양인양 내몰리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종래의 30%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간 <안동>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의 특수를 누리던 여러 산업이 한꺼번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기이하게도 구제역과는 아무런 상관성도 없는 안동찜닭, 안동간고등어, 안동산약, 심지어 안동사과까지 매출이 급감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제역은 분명 우리에게 불어 닥친 가혹한 시련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축산을 선진시스템으로 재탄생시켜 다시는 이런 유의 전염병사태에 국가적 에너지를 소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단시간에 사라진 명성을 되찾고 더 크게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 달에 한 번씩 구제역으로 이런 곤욕을 치러야 한다면 축산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구제역을 종식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 해도 재발방지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 축산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초 밀식으로 사육하는 공장형 재래식 축산에서 탈피하여 시설과 운영에 있어서 축주들에게 일정한 혜택과 책임이 수반되는 형태로 과감한 변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전염병 위험은 고사하고서라도 천년고찰 봉정사 길목 마을에 버티고 서서 악취를 내뿜는 축사들은 분명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제에 구제역과 같은 재난시에 신속하게 투입시킬 일종의 '재난상비군'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북가축위생시험소 인력은 가축수를 고려하면 전국 최소 규모입니다. 경북축산의 미래를 위해 가축방역관이 태부족인 농촌실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염병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가축 전염병예방법' 개정 또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번 사태를 그간의 우리 축산업의 제도적 맹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안동사람들은 너무도 혹독한 고난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간 대외적으로 알려졌던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안동은 이 겨울을 전염병과의 치절한 싸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안동사람들은 오늘의 고통으로 미래를 읽으며 내일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동의 시민 사회와 지방정부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첨단 시스템으로 경북축산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안동축산 재건에 힘을 보태주시시오!

더 나은 도시, 더 행복한 안동을 만들 것입니다. 찾고 싶은 안동, 닦고 싶은 안동 브랜드 이미지를 재건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17만 안동시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안동을 도와주시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0년 12월 24일(금)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 촉구

구자근 의원(행정정보건설위원회, 구미)

구미출신 행정정보건설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9대 경북도의회 초선의원으로서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느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경북도와 교육청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최근 3년간 의무고용비율은 모두 3% 이상으로
법적인 기준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고용대상공무원 수 2,039명
중 729명으로 3.4%입니다. 그러나 도가 출연한 산하기관의
경우 장애인고용률은 2.0%로 저조한 수준에 있으며, 10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2008년 1.09%, 2009년 0.94%, 2010년 1.59%로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촉구합니다.

먼저, 장애인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장애인 일자리 3천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 행정
도우미와 같은 1년 미만의 비정규적인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정규직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또는 통합교육과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으로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선발할 자원이(적격자)가 없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만큼 장애인은 교육과 훈련에서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장애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과 직업훈련의 현장에서 장애인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
을 합니다.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경북도의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729명의
장애인 중 중증장애를 포함하는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148명으로, 고용장애인의 20.3%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교육청의 경우 337명의 장애인 중 겨우 32명만(9.5%)이 중증
장애인입니다. 경증장애인들보다 중증장애인들은 더욱더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북도와 도 교육청내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특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학교와 도내의 도서관에 지적장애인을 의무적 으로
고용하여 사서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사서의 도움을 받아 도서를 정리하는
일은 쉽게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장애를 개인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성에 경북도와 교육청의 적극 나서야 합니다.
편의시설 설치와 더불어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영역)
을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도청과 산하기관 그리고 교육청과 산하기관에서 많은 장애인
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한 지원정책을 별도로 마련
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긍정
적인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차별정책은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본



주의 사회에서 분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불이익을 받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진급, 대학입학 등에서 유리하게 대우하는 적극적 차별 정책입니다.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경제활동과 사회적 지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나 지원을 받게 된다면 평생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일을 하여 자립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생산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경북도와 교육청이 발전시키고 공유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경인년을 보내고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거듭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요양시설에 관한 대책 및 경로당 활성화 대책 등

김희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포항)



문) 요양시설 질적개선 및 실태점검을 통한 이용편의 제공 대책은?

답) 요양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확대를 통해 질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 전문성 향상 교육을 통하여 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요양시설 운영실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중앙부처에 시설인력 배치기준 강화를 건의할 계획임.

문) 요양시설 등급 판정기준 완화 및 경북도의 경제적 부담 지원대책은?

답) 중앙부처에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인정자에 대한 요양 시설 이용 전면확대를 건의하고 경제적 부담이 어려운 노인의 시설이용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문) 인간적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요양시설의 최소기준 확대 방안은?

답) 요양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 사업을 통해 1인당 침실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요양시설의 1인실 확보비용 규정을 건의할 계획임.

문) 요양시설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현실화 방안은?

답) 향후 도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종사자 수당을 연차적으로 증액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답)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내실운영을 위하여 관리자에 대한 행정지원 및 지도강화 조치를 취하고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확보를 위하여 소외지역에 대한 이동복지관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임.

문) 자원봉사자 실비 현실화 방안과 운영프로그램 확보 대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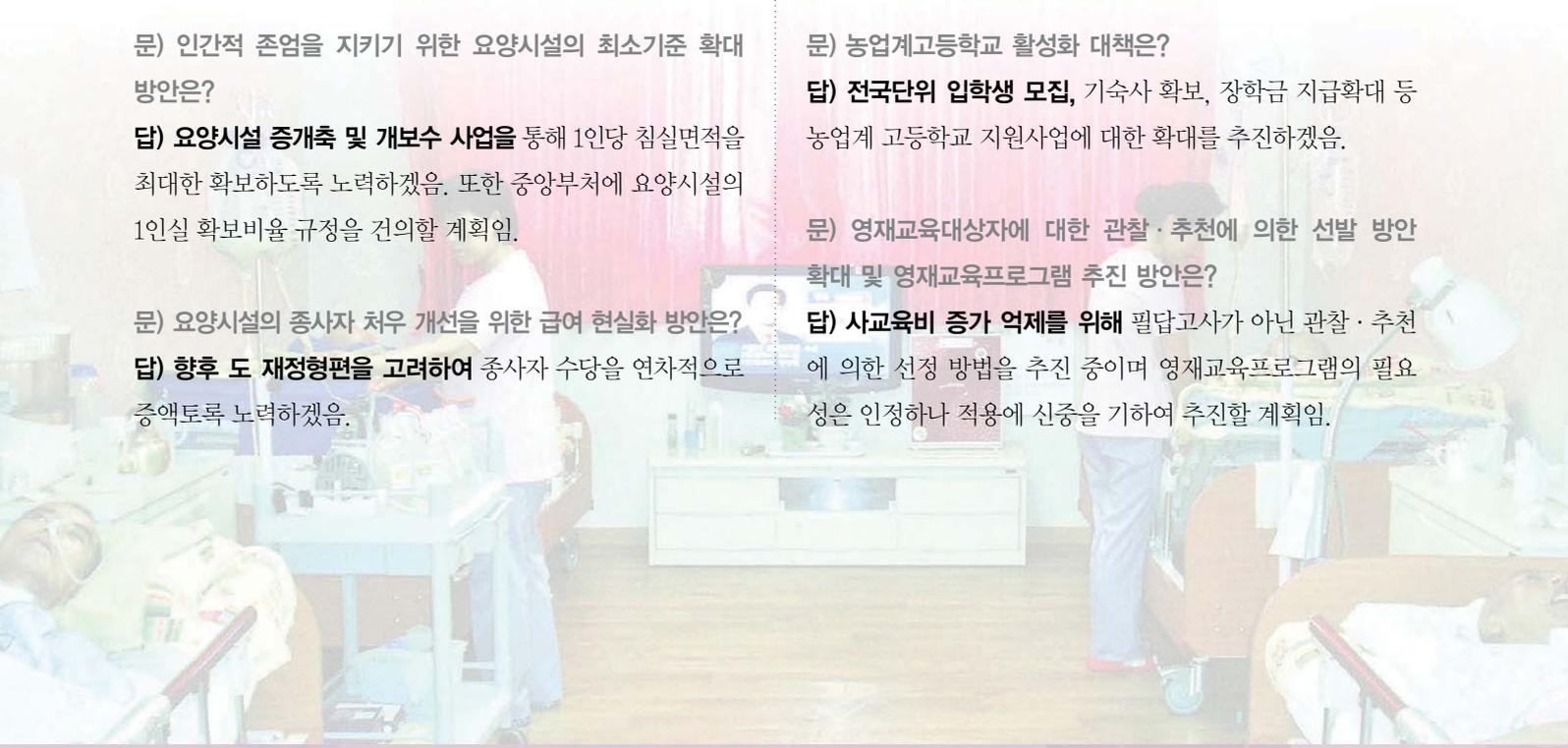
답)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제공 등 자원봉사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비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우수 프로그램 공모 등 자원봉사 운영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 농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대책은?

답) 전국단위 입학생 모집, 기숙사 확보, 장학금 지급확대 등 농업계 고등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문)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관찰·추천에 의한 선발 방안 확대 및 영재교육프로그램 추진 방안은?

답)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해 필답고사가 아닌 관찰·추천에 의한 선정 방법을 추진 중이며 영재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계획임.





2010년 11월 29일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경산지식산업지구 사업추진 대책 및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관련 등

김영식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산)



문) 경산지식산업지구 사업추진 부진 사유 및 실시계획 미신청시 대책은?

답) 경산지식산업지구는 당초 경산학원연구지구로 지정('08. 5. 6)되었으나, 외자유치 곤란, 경기불황 등으로 개발사업자 선정에 애로가 있어 첨단산업위주의 경산지식산업지구('10. 7. 12)로 변경함. 2011년 상반기중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수립 착수할 계획임.

문)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경산연장과 관련한 계획은?

답) 현재 대구시 도시철도는 북구 동호동~수성구 범물동(23.95km)의 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향후 경산시, 대구시와 협의하여 2011년 대구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 적정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임.

문) 도내 폐교를 해당 자치단체에 돌려주거나, 또는 영구히 대부하여 평생교육이나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정책이 있는지?

답) 지방자치단체에 폐교재산을 돌려주는 문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다시 변환할 수 없음. 또한 폐교를 지방자치단체에 영구 대부하는 문제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폐교가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공고를 하였으나 대부자가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10년 동안 대부할 수 있음. 따라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교를 우선 대부, 매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임.





2010년 11월 29일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문화재 관련 사항 및 대학입시제도 관련 등

이영식 의원(문화환경위원회, 경산)



문) 문화재의 화재, 도난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은?

답) 현재 화재, 도난 등 재난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통합 재난관리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으며 문화재 훼손 및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인력을 109개소 170명을 운용하고 있음. 또한 목조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화재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함.

문) 문화재 방재시설 공사시 문화재 전문 공사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은?

답) 현재 소화·경보설비 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 제한하고 있으며, 방범설비 사업은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 제한하고 있음.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등 관련부처에 개선 건의하여 추진하겠음.

문)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 대책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은?

답) 수강료 지원, 엄마품 멘토링제 참여, 특기·적성교육 강화로 소질 조기 계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시범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음.

또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하여 우수 강사를 확보하여 수준별 보충·심화반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계획임.

문) 학생들의 대학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정보 제공을 위한 대학입시제도 안내 활성화 방안은?

답) 대학입학 전형 일정에 맞추어 대학진학 연수, 매뉴얼 제작,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기초에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문) 독서교육 확대를 위해 각 학교에서 매뉴얼을 제시하여 시행할 방안은 있는지?

답) 현재 사제동행 행복한 책읽기, 학교도서관 우수프로그램 운영 등 독서교육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각 학교에서 독서교육 매뉴얼을 제시하여 시행할 방안은 독서교육 매뉴얼, 자료개발 및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여 우수 사례 및 일반화 자료를 보급·활용할 계획임.

문) 학급 담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은?

답) 학급 담임교사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를 위해서는 관련규정 개정과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여 다소 시간이 소요됨. 담임 교사에게 매월 0.005점씩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음.





2010년 11월 30일 제2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항 및 영천경마공원 조성 관련 등

강영석 의원(농수산위원회, 상주)



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대경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건설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은?

답) 김천~진주~거제구간의 남부내륙고속화 철도, 경북선(김천~상주~문경)의 고속화 등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북의 철도망 구축정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임.

문) 영천경마공원 조성 협약서는 경상북도와 영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임으로 재협상을 촉구?

답) 영천시, 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협의를 검토하겠습니다.

문) 영천의 경마장 개장에 따른 지역주민의 도박중독방지 및 사행산업이 가져올 폐해에 대한 대책은?

답) 경마장 최초 방문자를 위한 사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체험관 설치 및 운영 등 도박중독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 대구시 취수원 이전계획과 관련, 대구시가 우리 도 및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여부는?

답) 우리 도 및 구미시 등과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으나 대구시 관계관의 방문 협조요청 등 협의가 있었음.

문) 누수율, 보급률, 상수도 통합 등 상수도 문제에 대한 대책은?

답) 누수율 방지 및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후관 교체가 필요하나 수도사업자가 시장·군수이므로 지방비 부담의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할 계획임. 또한 상수도 통합은 중복투자 방지 및 물 분배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이므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함.





2010년 11월 30일 제2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청이전 관련 사항 및
교육수업개선 관련 등

홍진규 의원(건설소방위원회, 군위)



문) 청년일자리 mismatch과 청년실업 해소대책은?

답) 신경복형 「청년일자리 New Deal」 정책, UN과 함께 '새마을리더봉사단, 해외인턴' 등 국내외 청년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문) 도청이전 및 10만 신도시건설, 도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이전계획 수립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 도청이전은 신청사 건축비(4,055억원) 확보를 위해 전액 국비지원을 정부·국회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10만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7개 노선을 계획으로 도로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도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이전은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하여 추진할 계획임.

문) 초·중등교육 부분에 교수·학습활동지원비 재정비율을 높일 수 없는지?

답) 예산 중 사업성격상 교수-학습활동비성 사업을 합하면 전체예산의 14.2%에 달하며 재정상황이 개선되면 지속적으로 증액할 계획임.

문) 2010~2014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답) 국가 재정여건변동과 재정 운용방향, 교육청의 중장기 교육계획 등에 연동하여 매년 수정보완 하고 있으므로 변동 내용을 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수정하여 반영하겠음.

문) 교실수업개선과 성교육·양성평등 교육 예산을 2010년도에 집중 투자한 이유와 향후 교육적 성과는?

답) 교실수업개선 예산은 도내 학력향상 중점학교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집중투자하였으며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도내 학교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상승됨.

성교육·양성평등 예산은 최근의 빈번한 학교 성폭력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하였으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음.

문) 경북교육청의 예능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대책은?

답) 예능시설 및 교구의 현대화, 경북학생축제, 경북학생 음악제 등 다양한 발표의 기회 제공, 예능 관련 재정 지원 강화를 통해 예능교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음.

문) 체육교육에 투자되는 재정규모가 열악한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학교체육 내실화에 5년간 679억원, 각종체육대회 활동에 5년간 2백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2010년 11월 30일 제2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상주국제승마장 관련 사항 및 학교시설물 관련 등

김원석 의원(교육위원회, 교육 1)



문) 학교용지부담금 현황 및 미지급금 문제해결 대책은?

답) 2010년 포항, 안동, 구미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740백 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도의 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임.

문) 상주국제승마장 조성사업 및 대회운영경비에 대한 타당성 및 상주시에서 운영비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할 의향은?

답)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는 경기장 및 부대시설 구축, 지역내 생산 유발 및 고용유발 등의 경제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됨. 향후 상주시에서 지원요청과 관련해서는 시군의 모든 체육 시설은 건립비만 지원하며 시설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음.

문) 구미시와 상주시 공공승마장의 중복투자에 대한 여부 검토는?

답) 구미시와 상주시 공공승마장은 “낙동강 승마길 조성사업”의 한 부분으로 “낙동강프로젝트”의 승마길 부속시설을 지원 하는 사업임.

※ 낙동강 승마길 조성사업 : 상주 도남 ~ 구미 해평 약 40km

문) 학교시설물의 내진설계 현황 및 대책은?

답) 안전진단 결과 C·D 등급 15개교 21동 중 11개교 16동은 보수·보강, 개축 등 설계 및 시공을 완료하였음. 남은 4개교 5동은 학교측과 조치 방안 검토 중에 있음.

문) 포항, 구미, 경산지역 고등학생의 타지역 원거리 통학에 대한 대책은?

답) 현재 인구감소로 고등학교 전체 입학정원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향후 2013년까지 경산지역 등 2개교를 추가로 개교 할 계획임.



의/장/단

C h a i r G r o u p



경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구제역 방역대책에 여념이 없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상호 의장(경주시2, 한나라)은 11월 6일 경주 예술의전당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예술의 전당이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열린 문화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개관식이 있기까지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1월 1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하여 대구시의회 도이환 의장, 양영모 건설환경위원장과 만나 경북도민과 구미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경상북도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11월 13일 포항지역 도의원들과 포항시 남구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현장을 방문하여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위로 격려했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11월 17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경남도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분권 관련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어 경주현대호텔에서 개최된 2010월드그린에너지 포럼에 참석하여 경북이 그린에너지산업의 메카가 되기를 기원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1월 23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경진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21세기 저탄소산업정책에 발맞추어 경북도민이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기를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2월 2일 경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구제역 방역대책에 여념이 없는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의회 차원에서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12월 17일 경주 아리원에서 개최하는 한국교통장인인협회 경주시지회, 제12회 중증장애인 송년위안행사에 참석하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어르신들과 장애인 여러분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노인과 장애인의 권익에 더욱 더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11월 5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0대구경북그랜드포럼에 참석하였으며, 11월 18일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으며, 12월 6일 경산 선본사 일주문 광장에서 개최된 팔공산 선본사 일주문, 금륜교 낙성식에 참석, 12월 7일 안동 지역 구제역 방제 방역초소 야간근무 중 쓰러져 순직한 안동시청 공무원 고 금찬수씨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 12월 9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임시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12월 15일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경주 JC 회장단, 감사 이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축구대회 2010 경북리그 개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황상조 부의장(경산시2, 한나라)은 11월 5일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적십자사 창립 105주년기념 2010년 경북적십자사 연차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과 사랑의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적십자 회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11월 5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축구대회 2010 경북리그 개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 및 선수단을 격려했다.

11월 6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된 「2010 경북 큰만남 자원봉사&안전문화 선진화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안전과 봉사의 접목으로 새로운 안전문화의 패러다임 구축과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노력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11월 8일 경북도청 강당에서 개최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적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국비예산 지원을 촉구하였다.

11월 10일 경북도청 강당에서 개최된 「제51회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11월 18일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에서 개최된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산업단지 기공식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1월 23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개최된 「대구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12월 9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10 대구 경북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전시장을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영남권 내륙 물류기지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송필각 부의장(칠곡군1, 한나라)은 11월 9일 칠곡군 지천면 소재 영남권 내륙 물류기지에서 열린 「영남권 내륙 물류기지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물류기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11월 23일 대구은행연수원에서 열린 「돈선거 근절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돈선거의 문제점과 돈선거를 근원적으로 근절시킬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또한 12월 10일 달성군 현풍면 소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IST)에서 열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준공식」에 참석하여 DIGIST가 우수 과학인재 양성과 첨단 과학기술 개발의 요람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12월 22일 구 금오공대에 위치한 모바일융합기술센터에서 열린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모바일기술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핵심 기술센터로 성장해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의회 홈페이지 안내

<http://council.gb.go.kr>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대주민 고객 서비스 만족과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친숙하고 도민과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도민의소리난을 만들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또한 본회의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주 공성면 「재래시장 살리기 행사」 참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해 줄 것을 당부**

강영석 농수산위원회 위원(상주시2, 한나라)은 11월 6일 상주시 공성면 장날을 맞아 경상북도립 국악단을 초청하여 개최된 재래시장 살리기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국악공연을 통해 지역정서와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접목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을 살리는 계기가 되고, 곧 준공되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문화적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시골장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제1회 문경한우축제」에 참석, 행사 진행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 격려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문경시2, 한나라)은 10월 23일 문경새재 제7주차장 부지에서 개최된 “제1회문경한우축제”에 참석, 행사를 빛내고 행사진행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12월 5일 가은전통시장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가은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착공식 및 한마음 축제”에 참석, 자리를 빛내고 행사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외국의회와의 친선교류를 통한 협력증진을 위해 중국 하남성을 방문,
의정활동 수행**

곽광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고령군, 한나라)은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3박 4일동안 자매결연 외국의회와의 친선교류를 통한 협력증진과 민간외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 하남성을 방문,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2010 아트인 구미,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에 참석, 시민들과 화합의
시간을 가짐**

구자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구미시3, 한나라)은 12월 10일 사곡동 체육공원에서 열린 「2010 아트인 구미,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에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12월 20일에는 구미왕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10 임오동민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관계자와 시민들을 격려하고 주민화합과 단결을 통해 지역발전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봉화군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관계자 격려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봉화군, 한나라)은 11월 10일 내성면 공원에서 열린 「봉화군 농업경영인 대회」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화합과 단결된 모습으로 봉화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11월 15일에는 「춘양면 보건지소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2010년도 영덕군 노인대학 수료식」 참석, 어르신들의 노인대학 수료를 축하하고, 관계자 격려

김기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영덕군1, 무소속)은 11월 3일 영해 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2010년도 영덕군 노인대학 수료식」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의 노인대학 수료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11월 5일에는 영덕 군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45회 영덕군민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대회가 군민들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구미시 고아읍 공공비축미 매입현장 방문 매입과정 시찰

김대호 농수산위원회 위원(구미시6, 무소속)은 11월 26일 구미시 고아읍 공공비축미 매입현장을 방문하여 공공비축미곡 건조 비 2,500가마 매입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올해는 기상악화로 작황이 좋지 않은 만큼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만족할만한 수매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저출산 극복 범도민 토론회」 참석, 저출산 극복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당부

김말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비례대표, 한나라)은 11월 11일 도청 강당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 범도민토론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12월 9일에는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포항 ETC 0119봉사단 창립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15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안동시2, 한나라)은 11월 11일 농업인회관 3층에서 안동시농업인 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제15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자리를 빛내고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11월 29일 안동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제역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고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노고가 많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2010 지식경제부 실·국장 워크숍」 참석, 지식기반산업 및 원자력 에너지 사업 지역 유치 위해 노력

김세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비례대표, 한나라)은 11월 3일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뉴디자인 대구 경북 환경부문 세미나」에 경북도의회 환경분야 종합토론자로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업용수 수질개선 방안과 물 부족으로 인한 재해 시 수질개선된 2~3급수 저수지를 이용한 해결 방안으로 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1월 13~14일 1박 2일간 청도군 소재 오코펠리스에서 개최된 「2010 지식경제부 실·국장 워크숍」에 참석하여 최경환 장관, 박영준 차관 등 32명과 환담하고 지역 경제관련 자유정책토론을 하며 지식기반산업유치와 원자력 에너지사업 지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했다.





「제19회 영천시협회장기 축구대회」에 참석, 대회진행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 격려

김수용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영천시2, 한나라)은 11월 14일 영천강변체육공원 축구장에서 개최된 제19회 영천시협회장기 축구대회에 참석, 자리를 빛내고 대회 진행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12월 1일 영천시 중앙동 청년회가 주최하고 관내기관단체 회원과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한 ‘희망으로 한걸음, 행복 중앙 희망나눔 걷기대회’ 행사에 참석, 자리를 빛내고 행사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경북교육상 시상식 및 퇴직 지방공무원 훈포장 전수식에 참석, 2세 교육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적을 치하

김영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청송군, 한나라)은 12월 27일 도교육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6회 경상북도교육상 시상식에 참석·축사를 하였다. 평소 교육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교육의 혼을 불태우며 자신의 분야에서 헌신한 8명의 경북교육상 수상자에게 경북교육상은 스승으로서 가장 권위있고 영예로운 상임을 강조하고, 높으신 경륜과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경북교육 발전과 2세 교육에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12월 29일 도교육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0년도 하반기 퇴직 지방공무원 훈·포장 전수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생을 투철한 사명감으로 한 평생 공직에 헌신하시다 퇴직하는 54명의 지방공무원의 명예로운 퇴임과 영예로운 훈·포장 수상을 축하하고, 교육 현장에서 한평생 헌신하여 봉사한 공적을 치하하였다.



「경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식」에 참석, 농업인들을 격려

김영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경산시1, 한나라)은 11월 8일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경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행사 준비 관계자와 참석한 농업인들을 격려하였다.

11월 13일에는 장산초등학교에서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부1동 동민체육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단합하고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포항지역 학교장 공모제 심사」 참여, 수정·보완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협의

김원석 교육위원회 위원(교육1)은 12월 29일 포항지역 학교장공모제 심사위원(지역인사)으로 참여하였다. 그 동안 학교장공모제에서 대두된 문제점은 개선되었으나, 몇 가지 미비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였다.

12월 27일에는 영덕교육지원청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영덕지역고등학교 대학진학 상황을 점검하고 영덕지역의 학교 통·폐합 등과 같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영주 축협조합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 조합원들을 격려

김종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영주시1, 한나라)은 11월 12일 영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영주 축협조합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화합된 모습을 통해 영주 축산업 발전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11월 20일에는 경북북부 유교문화관 9개 시군과 안동MBC의 공동 주최로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세계유교문화축전 2010」 폐막식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유교문화의 세계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돈선거 근절 세미나」 참석, 돈선거 근절방안에 대해 토론

김창숙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비례대표, 민주당)은 11월 23일 대구은행연수원에서 열린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돈선거 근절세미나」에 참석하여 돈선거 근절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12월 9일에는 경산시 자인면 참사랑나눔터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물품을 전달하고 아동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기원 대행진」 행사, 거리행진에 참여

김하수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부위원장(청도군1, 무소속)은 11월 6일 영남권 21여 개 시민단체가 주최한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기원 대행진」 행사에 참석하여 청도역 광장에서 청도군청까지 거리행진을 펼치고 동남권 신공항이 밀양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하였다.

11월 28일에는 부산 자유총연맹회관에서 열린 「재부청도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향우회원의 고향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더 큰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포항 용흥동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 참석, 관계자 격려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포항시2, 한나라)은 12월 10일 「한국노총 포항철강건설노조 창립 4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축하·격려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선진노사문화 창달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12월 28일에는 경북개발공사가 주관하는 「포항 용흥동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독거노인 및 결손가정에 연탄을 배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라고 위로하였다.



「열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석,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김장 전달

김희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칠곡군2, 무소속)은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중국정부 초청으로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고 광저우시 일대를 방문하였다.

11월 20일 KT왜관지사 마당에서 KT사랑의 봉사단이 가진 「열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석, 300포기의 김장을 담귀 7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



김천시 2011년~2012년 주요사업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당정협의회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홍보예술단 발표회 참석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김천시1, 한나라)은 11월 4일 김천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현안사업과 국도비 건의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김천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시책개발 토론에 참여하였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내실있는 관리로 농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12월 27일 김천 예술고등학교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통일안보강연회 및 통일홍보예술단 공연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의성건강복지타운 기공식」에 참석, 현장 관계자들 및 주민들을 격려

나현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성군2, 한나라)은 10월 20일 의성을 철파리 공사현장에서 열린 「의성건강복지타운 기공식」에 참석하여 현장 관계자들과 참석한 주민들을 격려했다.

11월 15일에는 의성컬링센터에서 개최된 「2010 경북의성 아시아·태평양컬링선수권대회」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와 참가 선수단을 격려했다.



「2010년 세계 청소년 상형문자 페스티벌 개막식」 참석, 입상자 격려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예천군1, 한나라)은 10월 19일 G20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향상을 위한 「2010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가 열린 안동체육관을 방문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여 선진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을 격려했다.

11월 18일 예천군 용문면 초정서예연구원에서 열린 「2010년 세계 청소년 상형문자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에게 선현들의 철학사상을 담은 문구로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입상자들의 무궁한 발전과 필운이 흥왕하기를 격려했다.



경상북도종합복지관 청도분관 연말 「사랑으로 하나되는 작은 음악회」 참석, 관계자 격려

박관현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청도군2, 한나라)은 12월 2일 경상북도종합복지관 청도분관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개최된 「사랑으로 하나되는 작은 음악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담을 나누면서 소외된 계층에 문화행사를 자주 기획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12월 9일 청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농촌지도자 읍면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청도군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밀양신공항 건설 대경권 100인 선언」 행사 ‘전략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박기진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성주군2, 무소속)은 11월 1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밀양신공항 건설 대경권 100인 선언 행사의 전략 대토론회에 도의회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하여 경북을 비롯한 남부권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밀양에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2월 8일 성주군 파티마노인복지센터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주시 구제역 상황실」 방문 관계자 격려, 구제역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박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경주시1, 한나라)은 12월 31일 경주시청 구제역을 상황실을 방문하여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휴일에도 근무하여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구제역 조기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1월 13일에는 경주서라벌대 원석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경상북도 장애인 부모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장애우들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12월 7일에는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0년 경주시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따뜻한 마음을 이웃과 나누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밝고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경북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소방가족들의 처우개선 위해 노력

박성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영주시2, 친박연합)은 11월 14일 영주 KT&G운동장에서 개최된 「경북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각 시·군단위 소방서 임직원 및 가족들을 일일이 위로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오찬을 함께하며 소방가족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11월 26일 영주근로자복지회관에서 500여 명의 장애인복지시설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애인 복지시설송년행사」에 참석하여 장애인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어떻게 도와줘야 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소외감을 덜 느끼며 생활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토론했고, 복지시설 임직원들에게도 항상 웃음으로 장애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영주시에는 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촉구했다.



「제45회 영덕군민체육대회」 참석, 군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박진현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영덕군2, 한나라)은 11월 5일 영덕군민운동장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45회 영덕군민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체육회 관계자 및 참가한 선수들을 격려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12월 27일 영덕군 교육청에서 개최된 「제1회 영덕교육행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영덕교육청 청사 이전 문제 및 영덕초등학교 개축 건의 등 영덕교육발전 및 교육협력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미지역 중·고등학교 인성특강」으로 학생에게 큰 감동 선사

박태환 교육위원회 위원(교육5)은 11월 30일 구미시내 2개 중학교를 방문하여 3학년생을 대상으로 “소꼬리보다는 닭머리가 되기 위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12월 27일 선산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자기 존중(정체성 확립)과 비전갖기”라는 주제로 100분간 특강을 하여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참석, 김장 양념을 버무르며 소외된 이웃에 많은 관심을 당부

배수향 문화환경위원회 위원(김천시2, 한나라)은 12월 3일 김천스포츠타운 주차장에서 열린 「김천시 새마을협의회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에 참석하여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끼고 김장 양념을 버무르고, 소외된 이웃에게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11월 12일에는 김천시 황금동교회 경로대학에서 「환절기 노인 건강 지키는 법」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는 경로대학 어르신 120여 명을 대상으로 환절기에 가장 쉽게 걸릴 수 있는 감기 예방법과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 등을 쉽게 예를 들어 강연했다.



대구취수원 이전관련 시도의회 의장 회의 참석,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

변우정 농수산위원회 위원(구미시5, 한나라)은 11월 12일 경상북도 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대구시의회 의원들과 만나 구미지역 주민들 의견을 대변하고 취수원 이전 문제로 고조된 갈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10월 23일 금오산 분수 잔디광장 일원에서 개최된 「2010 행복나눔 박람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장애인 복지시설 “동지 팔죽” 행사」 참여,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에 따뜻한 사랑 베풀어

서정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 한나라)은 12월 20일 경산시 진량읍 소재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안락원에서 「동지팔죽 행사」에 참여하여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다.

12월 28일에는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산와촌초등학교 교장공모제 2차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중국 하남성 의회와 국제친선교류」 활동, 자매결연 외국 의회와의 친선 교류를 통한 협력증진과 민간외교 활성화 도모

심정규 교육위원회 위원(비례대표, 한나라)은 11월 8일에서 11월 11일까지(4일간) 도의원 14명과 함께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하남성 의회와의 친선교류를 통한 의정활동 협력증진과 민간외교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제12회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경산시3, 한나라)은 10월 9일 경산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2회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및체육대회」에 참석, 자리를 빛내고 행사진행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10월 26일 경일대학교에서 재난관련 19개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각종 대형사고시 신속대응 및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제역확산방지를 위하여 초소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방문 격려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구미지대 발대 18주년 기념식」 참석, 축사를 통해 관계자 격려

윤창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구미시2, 한나라)은 11월 13일 구미시 사곡동 경복새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구미지대 발대 18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대원들의 봉사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12월 27일 송정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자전거 전달식」 행사에 참석하여 자전거를 전달 받는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꿈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였다.



「신경주청년회의소 창립 18주년 기념식 및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지역사회 발전에 보다 큰 역할 당부 및 회장단 취임 축하

이 달 교육위원회 위원(경주시4, 미래연합)은 11월 24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신경주청년회의소 창립 18주년 기념행사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신경주청년회의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이날 치러진 신경주청년회의소 회장단의 취임 축하의 자리를 함께하였다.



노인요양시설 「봄마을」을 방문, 환경정화활동 및 위문품 전달

이경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비례, 친박연합)은 10월 22일 문경새재에서 열린 「문경한우축제」에 참석하여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참석한 시민들과 함께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였다.

11월 27일에는 문경시 마성면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봄마을」을 방문하여 시설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김치 등 위문품도 전달하였다.



구제역 가축방역대책회의 참석, 관계자에게 방역대책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이상용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영양군, 한나라)은 12월 30일 경북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구제역 가축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에게 구제역 방역대책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의회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한 맥락에서 11월 29일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긴급 방역대책에 전념하기 위해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도 연기하였다.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 일일찾집」 참석, 장애우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이시하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문경시1, 한나라)은 11월 15일 문경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열린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만들기 일일찾집」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장애우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12월 18일에는 문경관광호텔에서 열린 「2010년 문경 차문화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통해 문경차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49회 소방의 날 기념식」 참석, 소방관계자 격려

이영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안동시1, 한나라)은 11월 9일 안동소방서에서 열린 「제49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1월 11일에는 안동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제1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의성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및 의성군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참석, 관계자 격려

이왕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의성군1, 한나라)은 12월 11일 의성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3회 의성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11월 20일 의성군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된 「2010 의성군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하여 어르신들과 환담을 나누고 건전한 생활체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12월 6일 구제역 방역을 위해 설치된 의성군내 20개소 구제역 초소를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군 110주년 울릉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

이용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울릉군, 한나라)은 10월 25일 한마음회관에서 개최된 「개군 110주년 울릉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포항뿌리회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회원들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를 당부

이정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포항시7, 한나라)은 12월 28일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열린 포항 뿌리회 회장단 이·취임식에서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회원들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2월 19일에는 오천청년회관에서 열린 포항 오천청년회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통해 젊은 패기로 포항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당부하였다.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참사 현장 방문」 대책수립 활동 전개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포항시5, 한나라)은 11월 12일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참사 발생으로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사고현황 파악 및 대책수립을 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관계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근본적인 안전예방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11월 26일 포항 해병대 제1사단에서 마련한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전사한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에 찾아가 조문하고 장병들을 위로하였다.

11월 30일은 포항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규탄하는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하여 북한의 만행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2010포항구룡포 과메기 홍보행사」에 참석, 과메기의 우수성을 홍보

장두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포항시3, 한나라)은 11월 27, 28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0회 포항시장기 생활체육 전국합기도대회」에 참석, 대회관계자 및 참가선수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합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12월 23일 포항북부해수욕장 특설행사장에서 개최된 「2010포항구룡포 과메기 홍보행사」에 참석하였다. 축사를 통해 포항시민과 함께 포항의 특산물인 과메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더욱 애쓰겠다고 밝혔다. 12월 26일 포항북부여용.여성소방대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해주신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애써 주길 당부하였다.



「경주-포항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포항시4, 한나라)은 11월 25일 서라벌대 원석체육관에서 (사)경주 지역발전협의회 주관 「경주-포항공동발전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주와 포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동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12월 23일에는 포항북부해수욕장에서 열린 「2010포항구룡포 과메기 홍보 행사」에 참석하여 포항 지역 발전과 과메기 홍보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2010행복나눔박람회」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장영석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구미시4, 한나라)은 10월 23일 금오산 분수 잔디광장 일원에서 “통하는 행복, 통하는 시민, 통하는 구미”를 슬로건으로 열린 「2010행복나눔박람회」 행사에 참석, 자리를 빛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11월 9일 구미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소방관계자 및 각계각층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8회 소방의날 행사에 참석, 자리를 빛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2010 사회복지인대회」 참석, 노고에 감사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당부

전인철 문화환경위원회 의원(구미시1, 무소속)은 12월 9일 금오산호텔에서 열린 2010사회복지인 대회에 참석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12월 14일에는 구미시립도서관에서 열린 「2010년 여성단체 평가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에서 여성리더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0 나누어 행복한 울진군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 울진지역 발전을 위한 더 큰 자원봉사 당부

전찬길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울진군1, 한나라)은 12월 6일에는 울진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10 나누어 행복한 울진군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하여 그간의 노고에 격려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실천으로 울진지역을 발전시키는 더 큰 자원봉사를 당부하였다.

11월 11일에는 북면 나곡리에서 열린 「김연륜 장군 유적지 준공식 및 제례의식 봉행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장군의 숭고한 정신이 계승하는 노력이 계속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예천JC 창립 42주년 기념식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예천군2, 한나라)은 12월 4일 예천 남부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예천 JC 창립 제42주년 기념식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예천군 발전과 화합을 위한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월 7일에는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회룡포 삼강주막 일원을 둘러보고 현지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관광명소로 개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북 북부지역 구제역 방역초소」 방문, 구제역 확산방지 및 예방대책에 만전 당부

정영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성주군1, 한나라)은 11월 30일 성주지역자활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성주지역자활센터 송년회」에 참석하여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내실 있는 자활사업 프로그램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월 31일 이인기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과 함께 성주, 예천, 안동 등 7개 경북 북부지역 구제역 방역초소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구제역 확산방지 및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제4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관계자 격려

채옥주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포항시6, 한나라)은 11월 9일 포항남부소방서에서 열린 「제4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안전의 중요성과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다짐의 장이 되도록 당부하였다.

12월 23일에는 대한축구협회와 경북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한 「2010 대한축구협회장기-영일만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식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행사관계자와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신나는 교실·행복한 학교 신뢰받는 영천교육, 2010 실적 보고회」 참석, 교육가족의 노고를 치하

최우섭 교육위원회 위원(교육2)은 12월 23일 영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된 2010 영천교육실적보고회에 참석하여, 우은복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가족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2011학년도는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을 위해 더 큰 꿈과 희망을 펼쳐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상북도 도의회 초선의원(회장 최학철 의원) 도지사와의 간담회 개최

최학철 농수산위원회 위원(경주시3, 한나라)은 제9대 경북도의회 초선의원 모임인 초우회 회장으로서 지난 11월 9일 경상북도의회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경상북도 도정발전을 위한 협력의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추재천 교육위원회 위원(교육3)은 12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이번 심사에서는 관행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선택적이고 집중적 편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으며, 또한 교직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상주시 북문동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한재석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상주시1, 한나라)은 11월 9일 상주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48회 소방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 축사를 하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11월 23일 상주시 북문동 마을회관 전경에서 열린 준공식에 참석, 자리를 빛내고 마을회관 준공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제2회 새마을운동 발상지 홍보 및 기계 농특산물 축제 참석, 축하메시지 전달 및 관계자 격려

한창화 농수산위원회 위원(포항시1, 한나라)은 11월 7일 포항시 기계면 새마을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회 새마을운동발상지 홍보 및 기계 농특산물 축제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11월 12일 포항시 기계면 고지리 도요터 기쁨의 집 개원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하고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12월 21일 포항시 죽장면 죽장초등학교 상옥분교장 「하늘마루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학생들과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공간으로 자리 잡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업혁신센터 및 공산품홍보전시관 준공식」 참석, 상공인들 격려

한혜련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영천시1, 한나라)은 12월 8일 영천시 여성복지회관에서 열린 「2010년 여성 사회교육 수강생 작품 전시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여성들이 창업 교육을 통해 실제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월 17일 영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기업혁신센터 및 공산품홍보전시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지역상공업의 진흥과 공산품 판로 등 홍보관 역할을 하게 되므로 영천 지역 기업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교육지원청 행정협의회를 통한 현안사항 협의」 참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강조

홍광중 교육위원회 위원(교육4)은 11월 12일 안동교육지원청, 12월 5일 울진교육지원청, 12월 7일 봉화교육지원청의 행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지원청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강조하였으며, 특히 죽변고등학교의 인문계고 전환, 평해공고와 평해여정보고와의 통합, 평해중과 평해여중과의 통합, 평해공고의 마이스터고 추진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010군위군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

홍진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군위군, 한나라)은 10월 30일 군위체육공원에서 직원간 친목도모와 화합을 다지기 위한 「2010군위군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자리를 빛냈으며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11월 6일 서울 노원구 태릉사격장내 웨딩뷔페에서 300여 명의 향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2010년 재경군위군 향우회 제44차 정기총회 겸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자리를 빛냈다.



「2010년 울진군자원봉사자대회」 참석,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황이주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울진군2, 한나라)은 12월 6일 울진군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10년 울진군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축사를 통해 “울진이 좀 더 밝고 건강한 사회, 좀 더 향기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월 11일 기성면복지회관에서 열린 「2010년 기성면 노인회 결산 총회」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현안문제에 대해 큰 어른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포항 웰빙식품 과메기

과메기란?

과메기는 말린 청어인 '관목청어(貫目靑魚)'에서 나온 말이다. 꼬챙이 같은 것으로 청어의 눈을 꿰어 말렸다는 뜻이다. 영일만에서는 '목'이란 말을 흔히 '메기' 또는 '미기'로 불렀다. 이 때문에 '관목'은 '관메기'로 불리다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관'의 ㄴ받침이 탈락되고 '과메기'가 되었다.



Tip_ 과메기 맛있게 먹는 방법

먼저 적당히 잘 마른 과메기의 머리를 떼어내고 몸통을 반으로 가른 다음, 내장과 뼈를 발라낸다. 껍질도 벗겨낸다. 손질된 과메기를 김, 쪽파, 마늘, 부추, 고추 등과 함께 초고추장에 푹 찍어 생미역에 싸서 먹는다. 실파로 돌돌 말거나, 노란 배추에 싸 먹으면 생미역에 싸먹는 것과는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기름장에 찍어 김에 싸서 먹는 것도 별미다.

경북!



과메기의 유래

동해에서는 예로부터 청어잡이가 활발해 겨우내 잡힌 청어를 냉훈법이란 독특한 방법으로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건조 시킨 것이 과메기이며 청어과메기의 건조장은 농가부엌의 살창이라는 것이었다. 농촌에서는 밥을 지을 때 솔가지를 많이 때는데 이 살창은 솔가지를 땄 때 빠져 나가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 살창에 청어를 걸어두면 적당한 외풍으로 자연스럽게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살창으로 들어오는 송엽향까지 첨향되었다고 하며 이렇게 완성된 청어과메기는 궁중까지 진상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풍치를 그냥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두어 자연 건조시키는 것과는 달리 냉훈법에는 조상의 슬기와 지혜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 과메기로 만든 요리



과메기 무쌈



과메기 버거



과메기 초밥



과메기 튀김



과메기 튀김



과메기 회무침



깎뚝 과메기



과메기 마늘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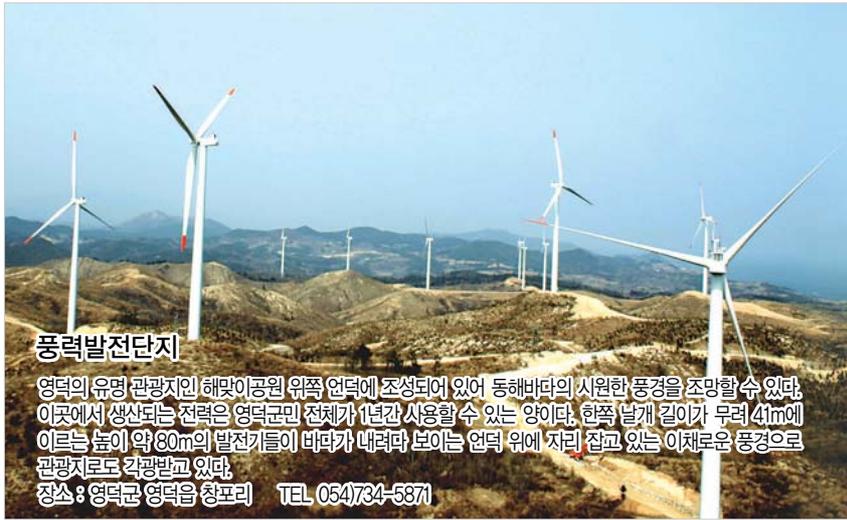
과메기 회무침, 과메기 초밥, 과메기 튀김, 과메기 마늘구이, 과메기 볶음 등 다양한 요리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포항 호미곶 상생의 손

호미곶 광장의 기념조형물인 상생의 손은 청동소재로 바다와 육지에 각각 설치하여 마주보는 형상으로 상생과 화합을 상징하고 있으며, 변산반도에서 가져온 20세기의 마지막 햇빛, 날짜변경선에 위치한 피지섬과 이 곳 호미곶 새천년 첫 햇빛 등이 합화, 안치된 성화대의 불씨는 각종 국제대회의 불씨로 사용될 계획이다.

쫄깃하고 담백한 풍미 **울진 · 영덕 대게**



풍력발전단지

영덕의 유명 관광지인 해맞이공원 위쪽 언덕에 조성되어 있어 동해바다의 시원한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영덕군민 전체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한쪽 날개 길이가 무려 41m에 이르는 높이 약 80m의 발전기들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지리 잡고 있는 이채로운 풍경으로 관광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장소 :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TEL 054734-5871



백암온천

수온이 섭씨 48도로 온천욕을 즐기기에 적당할 뿐만 아니라 물에 유익한 각종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만성피부염, 자궁내막염, 부인병, 중풍, 동맥경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장소 :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일대 TEL 054689-6902



덕구온천

신경통, 류마티스성 질환, 근육통, 피부질환, 중풍, 당뇨병, 여성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운동, 등산으로 인한 근육신경마비에 특효를 볼 수 있다.
 장소 : 울진군 북면 덕구리 575 TEL 054782-0677



경북!



Tip_ 울진·영덕대게를 맛볼 수 있는 후포항, 강구항 이용방법!

■ 후포항



• 중앙고속도로 이용시 영주IC로 나와서 28번 국도를 따라 영주 시내를 관통, 36번 국도와 만나는 삼거리에서 우회전 후 36번 국도를 따라가다 문암삼거리에서 88번 국도 온정(평해) 방면으로 가다 평해삼거리에서 영덕(포항)방면 우측 7번 국도로 후포항까지 가면 됩니다.

•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이용시 대련IC로 나와 7번 국도 영덕울진 방면으로 후포항까지 가면 됩니다.

• 대중교통 이용시 울진종합버스터미널까지 온 후 그곳에서 후포행 버스를 이용, 후포항까지 가면 됩니다.

• 장소 :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TEL 054)782-1501

■ 강구항



• 중앙고속도로 이용시 서안동IC로 나와 안동시내를 거쳐 34번 국도를 타고 영덕 방면으로 가면 청송군 진보면, 신촌약수, 황장재를 거치고 영덕읍을 관통한 후 7번 국도를 따라 강구항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 영동고속도로를 이용시 강릉 분기점에서 동해고속도로를 타고 동해IC로 나와 7번 국도를 따라 내려가면 삼척, 울진을 거쳐 강구항까지 가면 됩니다.

• 대중교통 이용시 영덕시외버스공용정류장까지 온 후 그곳에서 장사행 버스를 이용, 강구항까지 가면 됩니다.

• 장소 :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TEL 054)730-6514

대게(*Chionoecetes opilio*)란?

대게는 몸통에서 뻗어나간 8개의 다리가 대나무처럼 곧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한문으로는 죽해(竹蟹)이다. 대게는 우리나라 동해안 전역에 서식하여 특히 함경북도 연안의 냉수역 지대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영덕군 강구면과 울진군 후포면 앞바다에서 잡힌 대게가 타 지역산보다 다리가 길고 속살이 많을뿐 아니라 맛이 쫄쫄깃하여 그 명성이 높다.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영남일보 | 11. 17

“구미시민과 대화...먼저 동의 구해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은 갈등 확산 막고 대화로 문제해결 의지 표명”

이상호 경북도의회 의장 밝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은 대구와 구미, 그리고 경북도와의 갈등 확산을 막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상호 경북도의회 의장은 16일 **중앙일보** | 11. 17 반대추진각층에서

단,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결의문 채택 이후 구미 출신 도의원들은 사퇴서 제출을 자제하기로 했고, 구미시민 반대 결의대회와 초청 앞 집회를 취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11**면에 관련기사 이 의장은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



것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미 시민의 사전 동의없이 추진되는 취수원 이전에 찬성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의장은 “도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해서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대구시의회 의장과 구미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15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구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할 경우 취수원 하류지역의 강물 유지수가 모자라 수질악화, 구미공단내 공업용수 공급 차질을 빚게 된다”며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결의문”을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중앙일보 | 11. 17

경북도교육청, 내년 예산 2조8470억 편성

공교육 내실화·사교육비 절감에 중점

경북도교육청은 2011년도 경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금년도 본 예산보다 1732억원(6.5%) 증액된 2조8470억원으로 편성해 16일 **경북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은 국가시책사업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경북교육 2014’와 연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

점에 중점을 두었다.

항목별로는 ▶유아교육진흥 373억원▶외국어교육 340억원▶특별활동 지원 430억원 등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역점을 두었다. 또 학비 지원, 금식 지원, 교육복지지구 지원 등 교육 1149억원을 편성해 도농·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예산은 **도의회**의 심사에 확정된다.

제로 구미시민과 대화에 나서 먼저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서울일보 | 11. 22

경북매일신문 | 11. 23

“경북도청, 수입 올리는 기관의

경북도의회, 도청이전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신도시 조성 국비확보 노력 총력 기울여야” 강조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의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업을 이체는 수입을 올리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2일 도청이전추진단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도청 이전은 단순히 도청 청사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 청사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용진(울릉) 의원은 “전남도의 경우 1천687억원 전액 국비지원인데, 경북도는 국비 지원이 교차 27%에 해당하는 845억원으로 많이 안 되며 이는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 역할이 미비한 때문”이라 지적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활용하는 등 국비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관섭(고령) 의원은 “도청 이전에 따른 삼 집안 있다고 직원들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교육 시설에 대한 심도있는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도청 이전 부지 관계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소원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견제, 상생방안을 촉구했다.

윤성규(경산) 의원은 “경북도 관계

기관 중 도청이전을 희망하는 35개 기관의 인원수를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나머지 184개 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계기관 단체 직원 수 2천731명에 대한 대책 강구를 당부했다.

또 윤 의원은 “사업은 예산에 따라 향방이 갈릴 수도 있는 만큼 지방비 확보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도청이전, 낙동강 살리기 사업 등 큰 사업만 하라 보면 지역개발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2일 위원회 사무실에서 도청이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 의정활동 ‘강화’

정책대안 개발 ‘입법정책정보’ 지 발간

경상북도 의회사무처(처장 오정석)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한 다양한 입법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입법정책 자료를 수집·정리한 ‘입법정책정보’지(시·군)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의정활동과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전문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최근 동향을 요약·개제했으며, 타 시·도의 우수 의원입법

조례와 의회 소식 등 다양한 입법정책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9대 의회를 맞아 초선의원 60%(38명)의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회의진행 및 의안처리 등 지방의회 운영관련 용어해설을 수록 했다.

또한,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 입법활동 시에 참조할 수 있도록 지적입법심사·정비 착안사항을 수록, 의원의 전문성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항상 연구하고 열려있는 의원상 정립으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통한 의원입법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자료를 적극 발굴·수집, 반기별로 ‘입법정책정보’지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봉현 기자 mbh@seouilbo.net

편집 | 김선경 기자



대구연합일보 | 11. 24

대구·경북 비상! 전공무원 신속히 대처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단

연평도 사태에 대구·경북도 비상이 걸렸다. 23일 오후 4시53분께 행진안전 전부터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경찰, 행정관청 등에 전지원 비상대기 지시가 내려왔다. 이에 각 관공서는 직원들의 비

상연락망을 동원, 전 직원을 호출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관공서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비상대기 하는 한편 재난안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다. 이상효 의장은 "이 국가 위기상황에 처하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향후 상황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대경일보 | 11. 26

‘저출산 극복’ 의료 지원 주문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25일 기획경제·행정보건의지·농수산·건설소방·교육 위원회 등 전체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북도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정규(비례대표, 한나라)의원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과 교장 공모제 실시에 따른 평가위원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달(경주, 미래연합)의원은 도내 대안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안학교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과 농어촌 소규모학교 급식의 통·폐합으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것을 촉구했다.

▲최우섭(교육)의원은 학교회계 직 조리사의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면서 조리사의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건립 대상학교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원칙에 따라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추재천(교육)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한 계획 수립을 강조하고 학교운동부 전일코치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 행정보건의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2010년도 안동의료원 예산 운영을 주문하였다. 또한 과도한 학생제 처방에 따른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보다 신중한 처방 및 운영을 당부했다. ▲김종현(영주)의원은 경북도에서 파견하는 정책조정관 역할과 관련하여 정책조정관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것과 직원 퇴직금 운영 등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특정 약품의 과도한 처방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행정보건의지위원회는 경북도 안동의료원을, 농수산위원회는 농수산국 감사를 밝힌다.

또 건설소방위원회는 소방본부와 건설도시방재국을,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감사를 펼칠 예정이다. 김구동 기자

경북일보 | 11. 30

“북, 평화파괴·인명살상 사죄하라”

연평도 포격도발 규탄 지역 결의대회 잇따라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규탄 결의대회가 각계 각층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다. 관련기사 2·3·5면

경북도의회는 29일 제 2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의회 앞마당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도의회는 규탄 결의안에서 “북한의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인명살상행위를 무릅쓰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강력히 응징하라”며 “경북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그 어떠한 평화 파괴 세력과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상효 의장은 “북한의 무력 도발 강행으로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남북한 화해와 공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경북도의회는 300만 도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군위군의회(의장 조승제)는 29일 제1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와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지 등 현안 과제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국자유총연맹 경북지부도 30일 포항시 남구 대도동 소재 종합운동장에서 ‘안보단체 연평도 북한도발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이 대회에는 이병석·이인기 국회의

원을 비롯 도내 안보·보훈·시민단체 회원 5천여명이 참석, 연평도 북한도발 관련 결의·규탄사 등을 발표한다. 양승복기자 yang@kyongbuk.co.kr

경도일보 | 11. 25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재개

북 피격 위기에 중단... 일정 미룰 수 없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로 24일 하루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던 경북도의회(의장 이상효)가 25일 감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중단했다. 하지만 더 이상 일정을 미룰 수 없어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기로 한 것.

의회 관계자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 지 몰라 잠정적

으로 감사를 중단한 것을 현재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됐다 보고 정상 일정으로 되돌아간 것”이라 설명했다.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대구일보 | 12. 1



도내 기관들 구제역 확산 방지 노력

경북도의회, 긴급방역대책 전담위해 예산심사 연기

경북도내 일부 기관들이 안동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등분서주하고 있다.

우선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일 오전에 예정된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우선적으로 긴급 방역대책에 전념케 하기 위해 3일로 예산심사를 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수산위원회는 당초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1일 오전 11시께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가축방역 관계공무원의 구제역 확산방지를

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임시휴강, 조기 방학 등을 실시했다.

농민사관학교 축산과정은 경북대학교 친환경경양단반, 번식우반과 안동대학교 명품한우반, 영남대학교 품목마이스터 한우반, 대구대학교 친환경축산전문과정 5개 과정이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강기간을 구제역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 5개 과정 이외 과정의 교육생 중 구제역 발생가능 축산농가가 다수 포함돼 있을 시 임시휴강 및 조기방학하기로 했다.

경북도민일보 | 12. 7

도 관계자는 "간접소련 구제역 발생

경북도의회 '공무원 구제역 차단에 매달려라'

경북도청 내년 예산안 심사-의사일정 연기

경북도청·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14일 재개...성숙된 의회상 눈길

구제역 방역활동과 관련, 경북도의회가 경북도청 공무원들의 방역 일손 지원을 위해 2011년 도분청 예산안 심사 등 의사 일정을 모두 연기하는 성숙된 의회상을 보였다. 이는 현재 여야 진흙탕 싸움판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회와는 사뭇 다른 의회상이다.

경북도의회는 7일부터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2011년도 경북도와도교육청 예산심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안동 구제역 확산차단

을 위해 도분청 공무원들이 방역 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1주간 연기, 오는 14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또 예산안 심사 기간에서도 방역 관련 해당 공무원들의 불참을 허용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당초 16일로 예정된 도의회 정기회 본회의도 21일로 연기,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올해 도분청의 추경예산안 심사는 오는 21일 오후부터 시작해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경북도의회 이상호 의장은 "앞으로 1주일이 구제역 차단에 분열이 될 것으로 보고 도의회 의사일정을 늦췄다"며 "구제역 차단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일기자 kshidomin.com

경북매일신문 | 12. 9

도의회, 예산심사 제대로 손봤다

도청·도교육청 내년 예산 594억8천396만원 삭감... 예결특위로 제출

경북도의회가 제244회 임시회를 통해 도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예산심사에서 594억8천396만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했다.

반면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농수산국 소관 예비심사를 연기, 13일 이후 증감시 결정된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도청 공보관실 소관 업무인 각종 매체를 통한 도경시책홍보 2억5천만원, 기획조정실의 대구·경북연구원 운영지원 30억원 전액을 삭감결정했다.

또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청년실업해소 기반구축의 행정인턴 운영 3억7천500만 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양) 15억원 등 일반회계 28억7천만 원과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17억원 등 45억7천만 원을, 투자유치본부 소관 해외교류강화의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 운영비 3억원 등 6억7천840만원으로 총 84억9천840만 원을 삭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행정지원국 소관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5억원, 지역중심학교육성지원 사업 8억원 등 17억3천만원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복재단설립 5억원, 도립치매병원증거축 7억5천만 원, 포항의료원 채무상환 5억5천200만 원 등 37억2천700만원을 삭감결정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도청이전추

진단 소관 도청이전한마당어울림 행사 3천만원,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지역현안도로사업 3억원, 지방도 사업 6억원 등 13억5천만원을, 낙동강 살리기사업단 소관 온라인사이트 및 통신사활용홍보 2천800만원, 소방본부 소관 항공대 영접실 내장공사 2천200만원, 현동 119지역대 이전신축 2억8천800만원 등 6억2천800만원으로 총 20억3천600만원을 삭감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환경해양산업국 소관 국립인공강우기술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 5천만원, 방과제 조형화공원조성 2억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12억5천만 원 등 23억3천600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문화환경위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심사에서 해외일양동포와 함께하는 문화교류지원 사업 3천만원, 경북총가의 문장인장 제작 사업 2억원 등 4억7천만원을 삭감해 경북 집자도서관 출판사업지원 1천500만원, 도지정문화재보수(이양) 2억6천만 원, 독도 지키기 마라톤대회 개최지원에 2천만원 등 4억7천만 원을 자체적으로 편성했다.

△교육위원회는 경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심사에서 도 지정연구학교 보조금, 연구시범학교운영, 유치원 종일제운영환경개선비, 무상급식지원 등 406억8천656만원을 삭감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대구신문 | 12. 16

“국비 더 확보 할 방안 없나요”

도의회 예결특위, 구제역 농촌 피해 대책 촉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도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박병훈(경주) 위원장은 구제역과 관련,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농 피해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매가 되지 않아 농업인들도 피해를 입는 등 경북 전체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도정 발전을 위한 국비확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경북도의회 예결특위는 15일 도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이어갔다.

한재석(상주) 의원은 “조례에 의해 도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뭐냐, 예산 심의권은 있는지, 사후 정산은 받고 있는지”를 물었다.

한 의원은 “대경원 예산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을 지원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를 고쳐서라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희수 의원은 또 대경연구원에 대해 “도에서 대경원에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감사가 받지 않고 있다.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무런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일신문 | 12. 23

“도의회 예산심사, 원칙 지켰다”

사무감사 반영 과감히 칼질...대구시의회는 지역구 챙기기 치중

예산심사 마감 평가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가 내년도 대구시와 경북도에 대한 예산심사가 모두 끝이 난 후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본회의에 앞선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구시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대거 챙긴 반면 경북도의회들은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보다 ‘원칙대로’ 예산 심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의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이달 4일 새벽까지 이어진 예산 심사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예산액 5조 3천608억원 중 42억3천900만원만을 삭감했다. 일반회계 12억원, 특별회계 30억원을 각각 삭감했고, 삭감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 심사 막판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상당히 증액시키면서 삭감액이 대폭 줄었다는 후문이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OOO 의원은 20억원을 쟁겼다’ ‘△△△ 의원은 계수조정소위 막판에 읍소작전을 펴서 15억원을 가져갔다’ ‘◇◇◇ 의원은 지역구 예산으로 7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 소문이 무성했다. 의원들끼리 서로 쟁겨주기도 난무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비해 21일 새벽에 끝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가 제출한 5조4천509억원 회계 122억원, 특별회계 137억원을 삭감했다. 시의회 해 삭감 폭이 3배나 많았다. 정에서 대구경북연구원 운 조금 30억원을 비롯해 경북 기관의 예산도 대부분 삭감. 정사무감사와 예산을 연계 정사무감사에서 좋은 평가 못한 기관은 어김없이 예산 했다.

특히 예산을 삭감한 뒤에 구 의원들이 한 건도 자신의 위해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아 대로’ 심사했다는 평가를 경북도 관계자는 “예년에는 정소위 막바지에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열안 만 올리는 증액을 할 때다”고 의견을 수렴, 지역구 예산을 한 건도 쟁기지 않았다”며 놀리워했다.

박병훈 예결위원장은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부터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포기하면서까지 대폭 삭감을 했고, 이런 기류가 예결위까지 연결됐다”며 “어느 해보다 의원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영남일보 | 12. 21

“뽐뽐히 쟁겼다”

경북도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심사 마무리 휴일에도 열고 합속까지...일주일동안 강행군

“지난 일주일 동안 고3수험생보다 힘들었지만, 내년도 경북 살림을 뽐뽐히 쟁긴 것 같아 마음은 편합니다.” 휴일인 지난 18일 오전 예결위 도의회 법관. 박병훈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5명이 하나둘씩 모여 래전락기화단 등 경북도 50대 대한 예산심을 위해서다. 를 위해 휴일에 예결위가

도의회가 생긴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회는 당초 지난 7일부터 내년 예산심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휴일인 지난 18일 오전 예결위 예산심

경상매일신문 | 12. 27

북연구 사업시 경연구 문화권 는 전문 는데 들 산의 예 린 부분 au.co.kr

그러나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예산심의가 허술할 경우 내년도 경북도 살림 전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휴일 등원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해야 한다’고 뜻을 모으면서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강행했다. 이번 강행군 탓에 지역구가 ‘도의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일부 예결위원은 일주일 동안 도의회 인근 여관에서 잠을 자야 했다. 지난 17일에는 예결위원 전원이 한 여관에서 합숙을 하기도 했다. 경북도청과 도 교육청의 내년도



경북도의회 정례회 폐회이후 송년회를 가졌다.

경북도의회 폐회

경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지난 24일 오전 제24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갖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각종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11월15일부터 시작된 4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구자근(구미)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 촉구에 관해 발언했으며, 정례회 폐회이후 본회의장 로비에서 도의원 전원과 김관용 도지사, 이영우 교육감 등 집행부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도의회 송년회를 가졌다. 최대영 기자 chouldu@gsmnews.co.kr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신국제공항 최적입지는

밀양!

경제성은 물론 안전성, 환경성 등 모든 부문에서
밀양이 절대 우위입니다!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경상북도의회'

300만 도민의 염원! 동남권신국제공항 밀양유치!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